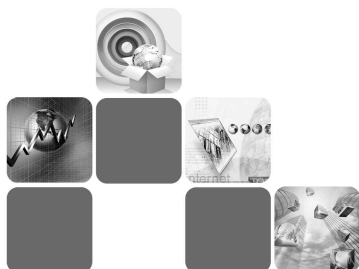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2021-3호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28

1. 비대면 시리즈② 러시아 - SSD 29
2. 비대면 시리즈③ 노트북 PC 33
3. Ex-Briefing 38

III. 부록 41

1. ICT 생산 통계 42
2. 2021년 2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3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0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56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57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1.2월 ICT 수출은 152.8억 달러(11.5%↑), 수입은 91.9억 달러(19.3%↑) 기록

- (수출)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대비 11.5% 증가한 152.8억 달러로 '20.6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품목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이 증가한 반면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부진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베트남 등이 감소했으나 중국(홍콩)·미국·EU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은 증가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84.4 (12.5)	16.2 (22.3)	10.3 (15.0)	0.9 (△36.2)	10.7 (△5.6)	152.8 (11.5)
중국(홍콩)	49.5 (10.9)	7.7 (30.3)	2.8 (68.6)	0.0 (△61.2)	4.2 (△7.7)	70.2 (13.6)
미국	5.7 (2.8)	0.2 (6.2)	2.4 (△25.7)	0.0 (△31.4)	3.2 (△7.7)	18.2 (6.7)
일본	0.8 (8.2)	0.1 (△49.4)	0.2 (92.8)	0.0 (△96.5)	0.4 (△44.3)	3.2 (△4.3)
EU	1.7 (7.3)	0.3 (△8.3)	1.2 (205.7)	0.2 (△16.1)	1.3 (13.2)	9.3 (14.0)
베트남	9.3 (△11.0)	7.4 (21.4)	2.3 (△15.1)	0.1 (△52.0)	0.1 (6.9)	23.1 (△0.8)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대비 19.3% 늘어난 91.9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디스플레이(2.4억 달러, △10.8%)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40.9억 달러, 4.6%↑), 컴퓨터 및 주변기기(12.5억 달러, 59.3%↑), 휴대폰(6.4억 달러, 18.8%↑) 등은 증가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38.9억 달러), 베트남(15.9억 달러), 미국(11.9억 달러), EU(5.0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60.9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1년		2020년	
		2월P	1~2월P	2월	1~2월
수출	전체 산업	448.1 (9.5)	928.3 (10.5)	409.1 (3.6)	840.1 (△1.9)
	ICT	152.8 (11.5)	315.7 (16.5)	137.0 (8.2)	271.0 (△0.0)
수입	전체 산업	421.1 (13.9)	863.6 (8.4)	369.8 (0.9)	797.0 (△2.6)
	ICT	91.9 (19.3)	199.5 (20.6)	77.0 (5.7)	165.3 (△1.0)
무역수지	전체 산업	27.1	64.7	39.3	43.2
	ICT	60.9	116.2	60.0	105.6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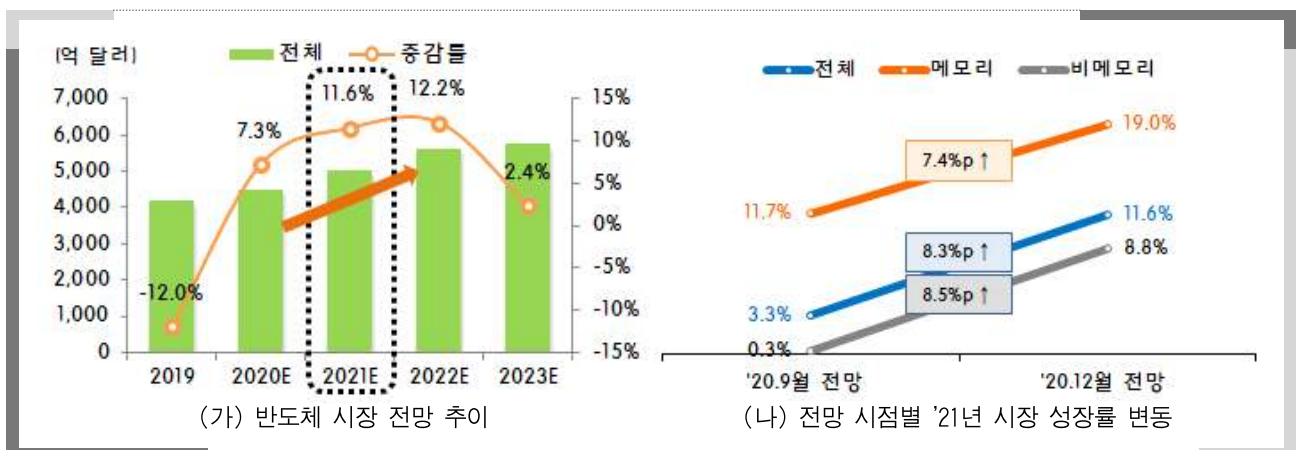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예상되면서 '21년 시장 전망치는 상향 조정

- (시장 전망) '21년 반도체 시장은 비대면 수요 확대와 더불어 신규 수요 등으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5,019억 달러로 성장세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Gartner, '20.12월)
-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반도체 장기 호황이 예상되면서 '20.9월 전망 기준 4,741억 달러(전년 대비 3.3%↑)로 예상됐던 '21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2월 11.6% 증가한 5,019억 달러로 상향 조정
- 메모리 시장은 채택근무, 온라인 강의, 온라인 스트리밍 등 비대면 환경에 따른 PC 및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당초(11.7%↑) 대비 7.4%p 상향 조정된 19.0%의 높은 성장률로 변경
- '21년 비메모리 시장은 '20.9월 당시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2월 성장세를 상향 조정(8.5%p↑)하며 8.8%의 견조한 성장세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IC인사이즈, WSTS 등 다른 시장조사기관에서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을 잇따라 제시하면서 향후 IDC의 시장 전망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IC인사이즈는 '21년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기존 4,524억 달러(전년 대비 12%↑)→ '21.3월 4,799억 달러(19%↑)로 성장폭을 7%p 확대 조정
 - ※ WSTS는 '21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20.6월 당시 6.2%↑로 예상했으나 '20.12월에는 8.4%↑로 상향 조정

그림 1-1 반도체 시장 전망 추이 및 전망 시점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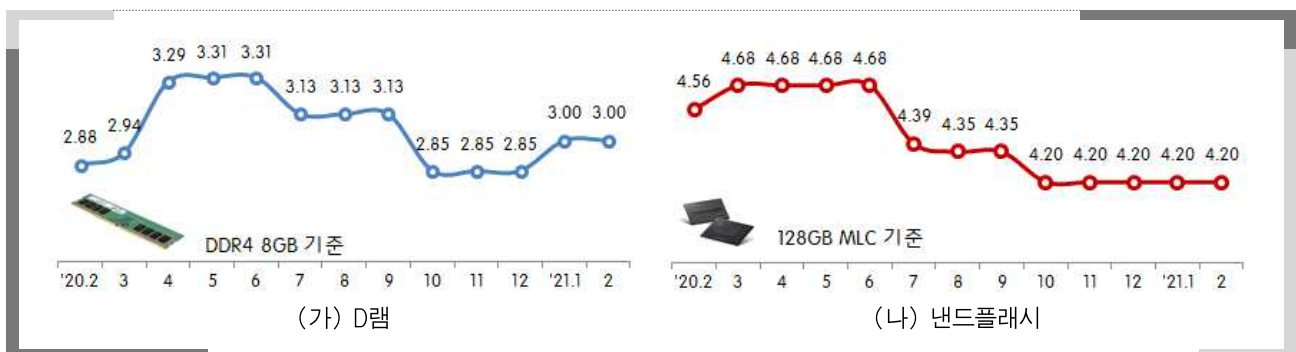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0.12.

□ '21.2월 메모리 고정가는 보합세 지속, 현물가격 상승 등 상승 국면 진입 조짐이 관측

-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지속
 - '21.2월 D램 PC용 제품(DDR4 8GB)의 고정거래가격은 전월과 동일한 3.00달러를 기록했으며 낸드플래시(128Gb MLC)도 4.20달러로 5개월간 동가를 유지
 - 한편 아마존·페이스북 등 클라우드 업체들의 데이터센터용 서버 투자 재개에 따라 서버용 32GB D램 고정거래가격은 119달러로 전월(115달러) 대비 3.48% 올랐으며 16GB 제품은 평균 68달러로 전월 대비 1.49% 증가하는 등 서버용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반등
 - ※ 반도체 제조사와 구매 업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2분기 고정거래가격 협상을 3월 말까지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이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
-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가격 반등 조짐이 관측
 - (현물가격) 고정거래가격의 선행지표로 해석되는 현물거래가격이 PC용 D램(DDR4 8GB) 기준 '20.12.1일 2.77달러 → '21.3.1일 4.37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분기 고정거래가격의 상승 폭은 기존 예상 대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시장 분위기를 곧바로 반영하는 현물가격은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공급계약가격)보다 약 3개월 정도 앞서 미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해석
 - (가격 전망) 차량용·스마트폰용 등 반도체 공급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등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은 상향 조정
 - ※ (D램 가격) '21.1분기 3~8%, 2분기 13~18% 인상될 전망. 특히 서버용은 수요가 3분기까지 지속될 경우 연내 40% 이상 오른다는 예상도 제기(트렌드포스, '21.3월)
 - ※ (낸드플래시 가격) '21.1분기 5~10% 하락한 후 2분기 보합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21.2월)했으나 '21.3월, 2분기 가격이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트렌드포스, '21.3월)

그림 1-2 |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고정거래가격, 2021.2.

□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업은 설비 투자를 확대할 전망

- 반도체 수요 확대와 더불어 미국 제재에 따른 생산 물량 집중, 자연 재해로 인한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 반도체 공급 부족이 발생
 -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 산업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 제재에 따른 영향으로 반도체 생산 주문이 물리면서 공급에 차질 발생
 - ※ '20.하반기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반도체를 공급 받던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 물량은 감소(연간 약 1억 6,000만 대 감소)한 반면 해당 감소분을 삼성전자·애플·샤오미 등 타 업체가 흡수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반도체 부품 주문이 퀄컴 등으로 집중
 - 또한 미국 텍사스의 한파(삼성전자·NXP·인피니온·TI), 대만 지진 및 가뭄(TSMC), 일본 지진 및 화재(르네사스) 등 자연 재해로 반도체 생산 중단이 잇따르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이 악화
 - 자동차 시장에서 시작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스마트폰·SSD 시장 등으로 확대되며 반도체 품귀 현상이 타 산업으로 확산
 - ※ (차량용) 차량 전력제어용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MCU)의 공급 지연이 확산하며 GM,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포드, 토요타, 테슬라 등 주요 완성차 제조사의 공장 가동 중단이나 생산량 감축이 확대
 - ※ (스마트폰) AP, 5G 모뎀칩, 통합 전력관리칩(PMIC), 무선주파수칩(RF) 등 스마트폰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21.2분기 스마트폰 생산이 예상 대비 5% 감소, 5G 제품은 약 30% 감소 예상(TrendForce, '21.3월)
 - ※ (SSD) SSD 컨트롤러 생산량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가동 중단으로 '21.5월 까지 SSD 생산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 제기
-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인텔은 3.23일 자체 설계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 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2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계획을 발표. 인텔은 확장된 생산 능력을 활용해 자체 활용 모델 'x86칩'과 모바일용 제품 'ARM칩' 생산 등 파운드리 사업도 시작한다는 방침
 - TSMC는 1.14일 '21년 설비 투자에 전년 대비 63% 많은 275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도 미국 텍사스주와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논의하는 등 연내 2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IC인사이드, '21.3월)
 -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설비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지난 '20년 16% 성장에 이어 올해(15.5% ↑), 내년(12% ↑)까지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SEMI, '21.3월)
 - ※ 파운드리 투자액은 '21년 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메모리 분야는 올해 280억 달러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치나 내년에는 26% 성장할 것으로 분석(SEMI, '21.3월)
 - 반도체 설비 투자가 잇따르고는 있으나 증설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생산라인의 핵심 공정 장비 설치까지 수개월이 걸려 단기간에 공급부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수출 동향

□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동반 성장으로 '21.2월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

- **(품목별)** '21.2월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호실적을 달성하며 전년 동월대비 12.5% 증가한 84.4억 달러를 기록
 - (메모리 반도체: 52.2억 달러, 12.6%↑)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데이터센터, PC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MCP, D램 등을 중심으로 증가. '20.9월 이후 6개월 연속 호조세 지속
 - (시스템 반도체: 27.0억 달러, 13.2%↑) 파운드리 등 수출이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성장세를 달성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증가한 반면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은 감소
 - 중국(홍콩 포함, 49.5억 달러, 10.9%↑)은 시스템 반도체(25.8%↑)와 메모리 MCP, D램 등 메모리 반도체(5.7%↑)가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베트남(9.3억 달러, △11.0%)은 메모리 MCP 등 메모리 반도체(41.2%↑)가 증가했으나 시스템 반도체(△32.4%) 급락으로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로 반전

표 1-3 | 반도체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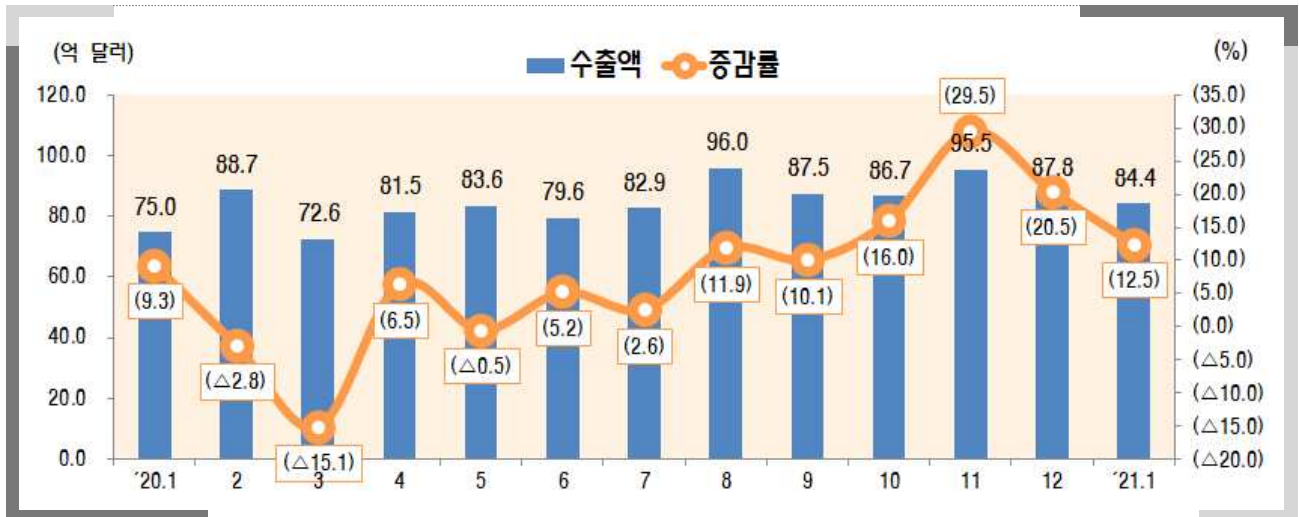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	3	4	5	6	7	8	9	10	11	12	'21.1	2
반도체	75.0 (9.3)	88.7 (△2.8)	72.6 (△15.1)	81.5 (6.5)	83.6 (△0.5)	79.6 (5.2)	82.9 (2.6)	96.0 (11.9)	87.5 (10.1)	86.7 (16.0)	95.5 (29.5)	87.8 (20.5)	84.4 (12.5)
메모리	46.4 (2.9)	56.6 (△13.5)	49.9 (△14.9)	57.8 (9.8)	57.7 (△2.0)	49.7 (5.0)	50.7 (△2.3)	61.9 (9.8)	54.3 (9.0)	51.9 (7.3)	59.9 (25.1)	53.2 (24.9)	52.2 (12.6)
D램	21.5 (2.7)	26.6 (△8.3)	27.3 (△2.4)	28.4 (20.2)	29.5 (18.1)	25.2 (16.3)	24.3 (8.1)	29.3 (24.6)	25.2 (14.2)	23.7 (8.3)	25.1 (18.9)	23.8 (19.8)	22.7 (5.6)
낸드	5.0 (34.0)	4.9 (△17.4)	5.3 (△20.5)	4.8 (1.2)	4.8 (9.5)	4.9 (△1.3)	5.0 (4.2)	5.8 (44.9)	5.1 (△1.4)	5.0 (12.2)	6.8 (77.2)	4.9 (△13.5)	4.6 (△7.4)
MCP	15.1 (27.4)	20.2 (6.3)	14.4 (△9.3)	21.2 (44.9)	19.0 (△4.4)	15.7 (9.7)	17.8 (0.6)	22.6 (14.7)	19.6 (21.9)	19.2 (27.7)	23.9 (34.7)	20.7 (59.5)	21.4 (41.7)
시스템 반도체	23.8 (27.4)	26.5 (32.7)	18.5 (△13.0)	19.4 (5.2)	21.4 (6.8)	24.6 (8.1)	27.1 (15.9)	28.5 (16.8)	28.2 (14.9)	29.8 (39.1)	29.9 (44.8)	29.1 (16.0)	27.0 (13.2)
개별 소자	1.2 (16.4)	1.4 (6.5)	1.1 (△13.2)	1.1 (△17.5)	1.2 (△6.5)	1.4 (△3.1)	1.3 (△3.7)	1.4 (9.6)	1.4 (2.6)	1.5 (12.7)	1.5 (17.1)	1.5 (30.2)	1.4 (10.5)
광전 소자	2.7 (5.7)	3.0 (△7.3)	2.1 (△35.8)	2.2 (△31.1)	2.2 (△22.7)	2.8 (△9.7)	2.7 (△13.2)	3.0 (11.8)	2.4 (△11.4)	2.3 (△9.3)	2.9 (△1.9)	2.8 (△12.3)	2.7 (0.3)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99.1	6.9	39.8	중국	31.7	15.6	37.5	65.9	20.0	38.2
2	홍콩	207.4	-7.0	20.7	홍콩	17.8	3.5	21.1	34.2	7.2	19.9
3	베트남	115.1	7.0	11.5	베트남	9.3	-11.0	11.0	20.0	-4.9	11.6
4	미국	80.7	25.8	8.1	대만	7.3	105.1	8.7	14.6	122.6	8.5
5	대만	63.7	43.2	6.4	미국	5.7	2.8	6.8	12.8	10.5	7.4
6	필리핀	29.0	1.1	2.9	필리핀	2.5	31.9	3.0	4.9	18.8	2.9
7	싱가포르	25.8	11.4	2.6	싱가포르	2.4	9.5	2.8	4.5	8.0	2.6
8	말레이시아	13.5	3.3	1.3	인도	1.6	21.0	1.9	2.8	17.9	1.6
9	일본	10.8	-16.9	1.1	말레이시아	1.2	31.2	1.4	2.4	9.8	1.4
10	인도	10.7	-26.8	1.1	브라질	0.9	1.3	1.0	1.7	9.7	1.0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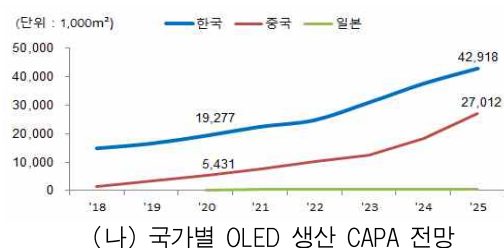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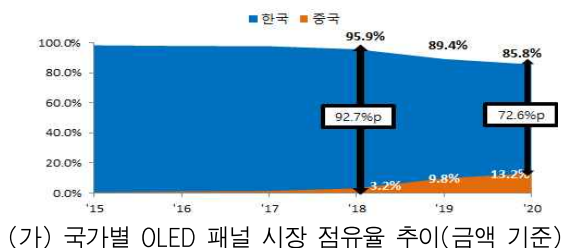
3 디스플레이 패널

1) 수출 환경

□ '21년 폴더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OLED 패널 신규 수요처가 확대될 전망

- (시장 전망) 폼팩터에 변화를 준 폴더블폰 출시가 늘어나면서 폴더블 패널 시장 성장이 기대
 - '21.하반기 삼성전자 등에 이어 中 오포·비보·샤오미, 美 구글 등의 전방 업체들이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를 잇따라 예고하며 폴더블폰 시장 진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
 - 이러한 전방 업체들의 폴더블폰 대중화 전략에 탄력 받아 '21년 폴더블 패널 출하량은 1,300만 대 내외로 전년(약 500만 대) 대비 약 2~3배가량 크게 늘어날 전망(한국경제, 3.2일, 원소스 OMDIA)
- 폴더블폰 등의 신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국내 업체는 OLED 패널 시장 성장을 주도, 다만 중국 업체의 빨라진 추격 속도에 대응책 마련에도 집중하는 모양새
 - 중국 업체는 글로벌 OLED 패널 시장에 첫 진입한 '16년 이래로 단 4년 만인 '20년에 시장 점유율 13.2%(금액 기준)를 차지하며 두 자릿수 대 성장률을 기록해 눈길(조선비즈, 3.18일, 원소스 OMDIA)
 - 동 기간 국내 업체는 85.8%의 점유율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며 중국 업체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한 중 점유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 ※ OLED 패널 시장 내 한 중 점유율 격차(%p, 금액 기준) : ('17년) 96.5, ('18년) 92.7, ('19년) 79.6, ('20년) 72.6
 - 이와 같은 중국 업체의 OLED 패널 시장 점유율 확대 행보에 국내 업체는 스마트폰에 이어 폴더블 노트북용 OLED에 대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폴더블 패널 수요 채널 확대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
 - 게다가 현재 국내 양사는 폴더블 노트북용 6세대 OLED 신규 라인(SDC는 충남 탕정 A4-2, LGD는 경기 파주 E6-3) 조성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향후 투자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
 - ※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21.4월 중단키로 했던 LCD 생산을 12월까지로 미뤄 두 번째 연장 생산을 단행. 이는 주요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패널 가격 상승세와 세트 수요 강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

그림 1-4 | 국가별 OLED 패널 시장 점유율 추이(금액 기준) 및 생산 CAPA 전망



자료 : 유비리서치, OMDIA

□ 독주 체제를 구축한 국내 업체와 후발업체 BOE와의 OLED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국내 업체)** LCD 패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OLED 기술 우위로 시장에 대처할 방침
 - LG디스플레이와 중국 업체들의 OLED 패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OLED 패널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축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 전략에 집중
 - ※ OLED 패널 가격(55인치 기준, OMDIA)은 '20.1분기 550달러에서 4분기 510달러까지 하락
 - **(삼성디스플레이)** 게이밍 IT기기와 선도적인 폴더블 기술을 앞세워 수요처를 확대하는 모양새
 - (#1 게이밍) 코로나19 특수로 게임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에이수스가 게이밍 스마트폰 (로그폰 5, 3.10일 공개)의 6.78인치 OLED 패널 공급 업체로 동사를 선정
 - 해당 패널은 1초에 120프레임을 나타내는 120Hz 이상의 주사율을 지원해 빠른 화면 전환이 요구되는 게임 콘텐츠에 특화. 또한 고속 구동하는 영상의 '이미지 끌림 정도(Blur Length)'가 0.7mm이하, '동영상 응답속도(MPRT)'는 11ms(밀리세컨드, 1/1,000초) 이하로 업계 최고 수준
 - ※ OLED 패널 주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LTPO TFT 기술이 핵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만이 양산에 성공
 - 뿐만 아니라 日 비디오 게임업체인 닌텐도도 차세대 게임 콘솔 '스위치'에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채택. 7인치 720픽셀의 OLED 패널을 '21.6월부터 공급할 것으로 관측
 - ※ 스마트폰 이외의 게이밍 기기 시장으로도 글로벌 OLED 패널 고객사를 확보하는 광폭 행보에 주목
 - (#2 폴더블) 폴더블 시장 내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동사는 하반기 세트 업체의 폴더블폰 출시를 기반으로 폴더블 패널 시장 지배력 확대 및 기술 우위를 유지한다는 전략
 - 특히 올해는 초박형 강화유리 디스플레이 'UTG(울트라 썬 클래스)' 보급 확대를 목표로 제시. 하반기에는 기존 UTG 내구성을 강화해 터치펜도 사용할 수 있는 폴더블 패널을 공급할 계획
 - **(LG디스플레이)** 이전 레노버의 폴더블 노트북용 패널을 공급한 바 있는 동사는 '21년 스마트폰 인폴딩 폴더블 기술, '23년 인&아웃폴딩(2번 접는) 폴더블 기술 등을 집중 개발할 계획
 - ※ 해당 패널 기술은 애플의 차세대 폴더블폰 프로젝트의 일부로 아이폰용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
 - 현재 동사는 곡률(작을수록 90도에 가깝게 접힘) 3R 수준의 폴더블 기술을 보유. '23년까지 1.5R로 개선할 계획
 - ※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유럽 LCD 생산 거점인 폴란드 법인을 청산. 올해는 세트 업체의 공장과 근접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OLED 패널 생산에 매진할 계획
- **(BOE)** 인폴딩 및 아웃폴딩 방향과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접히는 360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3.2일)
 - 360도 플렉시블 패널은 최대 20만 번까지 접었다 펼 수 있는 내구성 등을 보유해 향후 화웨이의 차세대 스마트폰 '메이트X3(가칭)'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
 - ※ 한편 BOE는 화웨이, 모토로라 등에 폴더블 패널을 공급해 수주를 확대하며 국내 업체를 맹추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업체와의 기술력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

2) 수출 동향

□ '21.2월 패널 수출은 LCD 패널 가격 상승, 전방 수요 증가 등으로 6개월 연속 호조

- **(품목별)** 전 품목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며 2월 수출은 22.3% 늘어난 16.2억 달러 형성
 - (LCD 패널 : 4.5억 달러, 4.6%↑) LCD 패널 가격 상승, TV 및 IT 기기의 수요 폭증 등으로 4개월 연속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며 전체 패널 수출 성장에 기여
 - (OLED 패널 : 8.4억 달러, 32.9%↑) 폴더블폰의 확산, IT기기 탑재 비중 증가 등으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 일로
 - (부분품 : 3.3억 달러, 25.7%↑) BLU(0.1억 달러, 25.4%↑), 편광판(2.3억 달러, 39.5%↑) 등의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 **(지역별)** 베트남·중국(홍콩 포함)·미국 등 주요 교역국 패널 수출은 건조한 성장 흐름 유지
 - 베트남(7.4억 달러, 21.4%↑)은 LCD 패널(0.8억 달러, △23.7%), 부분품 수출(0.5억 달러, △20.5%)이 부진하나 모듈 공장向 OLED 패널(6.1억 달러, 37.6%↑) 수요 확대로 6개월 연속 상승 기록
 - 중국(홍콩 포함, 7.7억 달러, 30.3%↑)은 LCD 패널(3.4억 달러, 15.1%↑), OLED 패널(2.2억 달러, 33.5%↑), 부분품(2.1억 달러, 59.4%↑) 등 전 품목 수출이 오름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성장
 - 미국(0.2억 달러, 6.2%↑)은 LCD 패널(△8.0%)의 감소, OLED 패널(△35.0%)의 하락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0.1억 달러, 19.0%↑)이 호조를 보이며 오름세 유지

표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2	3	4	5	6	7	8	9	10	11	12	'21.1	2
패널	13.2 (△15.0)	16.4 (△4.4)	12.4 (△28.0)	12.8 (△21.1)	15.0 (△5.3)	15.5 (△21.1)	18.1 (△16.9)	21.1 (2.7)	21.2 (10.6)	21.8 (27.7)	23.9 (31.2)	20.7 (32.1)	16.2 (22.3)
LCD	4.3 (△35.1)	5.4 (△26.9)	4.4 (△37.4)	4.5 (△36.4)	4.9 (△26.2)	5.5 (△23.4)	5.2 (△22.7)	5.5 (△3.5)	5.3 (△7.9)	5.4 (2.4)	6.1 (12.8)	5.3 (10.5)	4.5 (4.6)
OLED	6.3 (2.6)	7.7 (12.5)	5.4 (△25.2)	5.9 (△4.1)	6.9 (13.4)	6.4 (△28.9)	9.5 (△18.9)	12.2 (3.3)	12.8 (22.7)	13.4 (46.3)	14.4 (46.0)	12.2 (52.1)	8.4 (32.9)
부분품	2.6 (△5.5)	3.3 (12.1)	2.7 (△13.1)	2.4 (△20.5)	3.2 (2.8)	3.6 (3.7)	3.4 (2.5)	3.4 (11.8)	3.0 (3.6)	3.0 (13.4)	3.4 (15.4)	3.2 (12.3)	3.3 (25.7)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2월 당월				1~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01.2	21.7	48.9	베트남	7.4	21.4	45.6	18.8	39.3	50.8
2	중국	88.5	-18.8	42.7	중국	7.3	31.5	45.4	15.2	23.7	41.3
3	홍콩	3.9	-18.8	1.9	홍콩	0.4	9.4	2.2	0.7	26.5	2.0
4	미국	2.2	-3.4	1.1	미국	0.2	6.2	1.2	0.4	13.5	1.0
5	멕시코	2.0	-37.5	1.0	멕시코	0.1	-0.5	0.9	0.3	4.0	0.8
6	일본	1.3	-47.4	0.6	인도	0.1	21.0	0.6	0.2	17.6	0.5
7	인도	0.7	-12.4	0.4	헝가리	0.1	20.1	0.4	0.1	18.5	0.4
8	폴란드	0.7	-67.0	0.4	일본	0.1	-49.4	0.4	0.1	-47.7	0.4
9	대만	0.7	-24.6	0.3	말레이시아	0.1	39.4	0.3	0.1	-20.5	0.2
10	헝가리	0.6	3.5	0.3	대만	0.0	-30.3	0.3	0.1	-20.2	0.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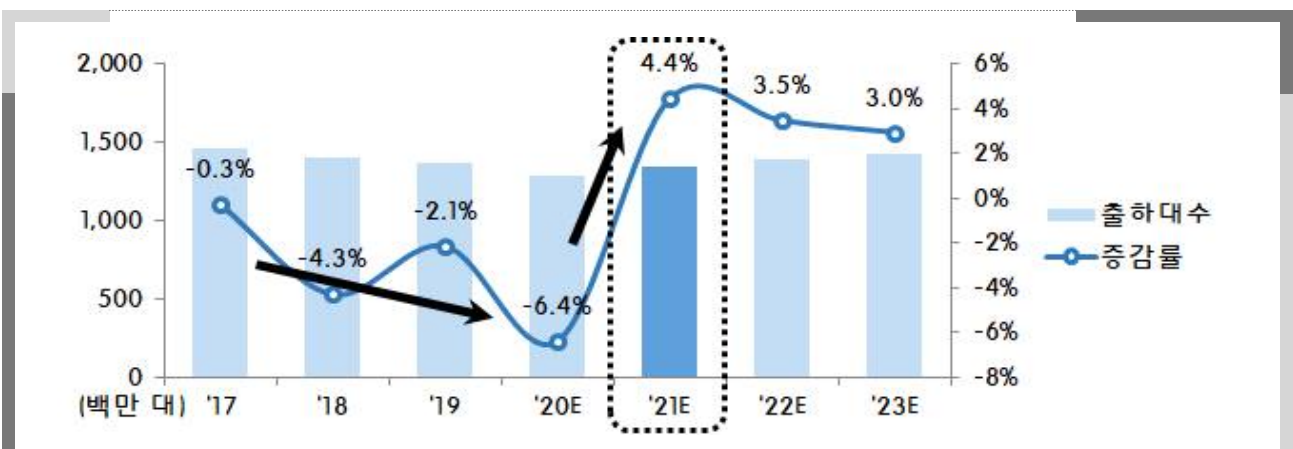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5년 만에 반등이 예상되는 '21년 스마트폰 시장, 1분기 회복조짐 관측

- **(’21년 전망)** 5G 확산 가속, 기저효과 등으로 13억 4,210만 대를 출하하며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측(IDC, ’20.12월)
 - 올해는 애플의 5G 제품 확산 가속, 폴더블·롤러블 등 이형(異形)폰 출시 확대, ’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성장 전환이 예상
 -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데스크톱·노트북·태블릿 등 PC 및 TV로의 강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차량용 시장에서의 반도체 확보 경쟁 등이 발생하면서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부품 조달 차질로 완만한 성장을 전망
- **(’21.1분기 전망)**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했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회복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약 50% 가량 증가한 3억 4,000만 대 출하가 예상(디지타임스, ’21.3월)
 - ’20.10월 출시된 ‘아이폰12 시리즈’(특히 프로·프로맥스 모델) 흥행 등으로 애플은 총 6,000만 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 공급업체가 될 것으로 추정
 - ※ ‘아이폰12 시리즈’ 실적이 본격 반영된 ’20.4분기~’21.1분기 애플은 1억 5,000만 대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
 - 미국 제재로 축소된 화웨이 점유율을 샤오미가 다수 흡수하면서 시장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
 -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 분기에 이어 시장 2위를 차지하나 소폭의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며, 화웨이는 2,000만 대 미만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며 시장 6위로 추락 전망

그림 1-6 전 세계 스마트폰 연간 전망 추이



자료 : IDC, 2020.12.

□ 중저가 집중, 신제품 출시일정 조정, 위탁생산 확대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략에 변화

- **(중저가 강화)** 삼성전자는 3.17일 중저가 최초로 언팩 행사를 개최하며 신제품을 공개
 - 삼성전자는 3.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어썸 언팩’ 행사에서 중저가형 스마트폰인 ‘갤럭시A52’와 ‘갤럭시A52 5G’ ‘갤럭시A72’를 공개. 삼성전자가 보급형 모델을 내세워 언팩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저가 제품에 힘을 신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 또한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A 시리즈’는 보급형 제품이지만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 방수·방진 지원, 광학 3배 줌/디지털 30배 줌(갤럭시A72) 등 전략폰에 탑재되는 기능이 포함돼 주목
- **(출시일 조정)** ‘갤럭시S21’ 조기 출시, ‘갤럭시노트’ 미출시 등 통상적인 일정을 조정
 - 통상 삼성전자는 2~3월 ‘갤럭시S 시리즈’, 8~9월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 플래그십 모델을 공개 해왔으나 올해는 예년보다 일정을 한 달가량 앞당긴 ’21.1월 ‘갤럭시S21 시리즈’를 공개. ‘아이폰 12 시리즈’ 흥행 전제 및 시장 조기선점 효과를 위해 출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
 - 한편 ‘갤럭시S21 시리즈’·‘갤럭시Z폴드3’(예상) 등 ‘S펜’ 적용 모델을 확대하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 일정에 ‘갤럭시노트’가 제외되는 등 ’21.하반기 ‘노트’ 대신 ‘FE·폴더블’에 역량이 집중될 전망
- **(위탁생산 확대)** 5G 스마트폰 처음으로 합작개발방식(JDM)을 적용하며 생산성을 개선
 - 삼성전자는 7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A22 5G’를 5G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JDM 방식으로 생산하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5G 모델에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
 - ※ 삼성전자가 JDM 방식을 적용·출시하는 제품은 ‘갤럭시A·M 시리즈’ 최하위 모델 10여종으로 출고가격은 10만~20만 원대에 책정. JDM 물량은 ’21년 전체 생산량의 20%(약 5,000만 대)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
 - 후면 커버 등 부품 대부분이 중국 화친·윙텍 등 외주업체 자체 공급망을 통해 조달되나 카메라 모듈과 기관 등 핵심 부품은 삼성전자가 중개한 국내 협력업체 제품을 활용하면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고 급변하는 시장 구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제고

표 1-7 위탁생산 방식 비교

구분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er,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	JDM (Joint Development Manufacturer, 합작개발방식)
정의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제조업체(생산자)가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제조업체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제조사와 제조업체(전문업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개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제조사가 제작하는 방식
브랜드 개발	주문자	주문자	주문자
제품 기획 ·디자인	주문자	제조업체 전달	주문자·제조업체 협업
부품 선정 ·조달	주문자	제조업체 전달	핵심부품선정에 주문자 관여
제품 생산	제조업체 전달	제조업체 전달	제조업체 전달
장점	생산비용 절감	제조업체의 전문성 확보	OEM, ODM 단점을 보완
단점	기술 유출 우려	생산비용 증가	-

자료 : 언론 자료 재정리

□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제품 생산에 차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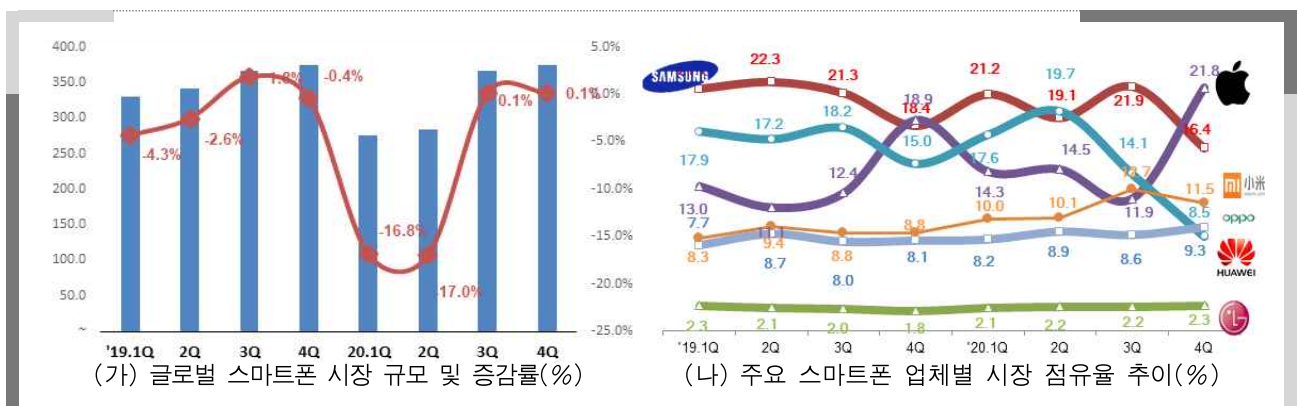
-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자연 재해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이 맞물리면서 스마트폰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
 - '20.하반기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약 4,000만 대로 축소(약 1억 6,000만 대 감소)되고 이를 애플·샤오미·오포·비보 등 타 글로벌 업체가 흡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 반도체를 공급 받아 온 화웨이 반도체 물량이 퀄컴 등으로 집중되면서 생산이 지연
 - ※ '20.4분기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은 3,200만 대로 전년 대비 21.7% 감소(Δ 2,400만 대)했지만 애플(15.6% \uparrow , 1,100만 대 \uparrow), 샤오미(30.3% \uparrow , 1,000만 대 \uparrow), 오포(14.4% \uparrow , 440만 대 \uparrow), 비보(21.3% \uparrow , 600만 대 \uparrow) 등은 증가하면서 화웨이의 감소된 수요가 타 업체로 상당부분 이동한 것으로 분석(SA, '21.2월)
 - 한편 퀄컴의 주문을 받아 5G RFIC 등 중급AP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가동 중단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
 - 이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으로 '21.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5G 스마트폰은 30% 감소가 예상(TrendForce, '21.3월)
 - ※ 퀄컴의 반도체 납품 기간은 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스냅드래곤 AP의 경우 주문에서 생산까지 약 30주, 블루투스 칩은 약 33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단기간의 공급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은 당분간(올해 하반기 또는 길게는 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모바일 AP 등 스마트폰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삼성전자는 물론 오포·비보·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도 스마트폰 생산에 어려움을 호소
 - (샤오미) 류웨이빙 샤오미 부회장은 '21.2월 개최된 '레드미 K40' 발표회에서 올해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품절됐으며 극심하게 부족하다고 알렸고, 일부 스마트폰용 반도체 재고 소진으로 해당 반도체를 탑재하는 스마트폰 모델 생산을 중단
 - ※ 샤오미 등 일부 스마트폰 업체는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재고가 바닥난 칩이 들어가는 중저가 모델을 단종시키고, 재고가 남아 있는 칩이 들어가는 모델을 긴급 투입
 - (오포)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의 서브브랜드 리얼미 경영진은 AP, 5G 모뎀칩, 통합 전력관리 칩(PMIC), 무선주파수칩(RF) 등 스마트폰 반도체 재고가 바닥났다고 언급
 -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고동진 IM 부문 사장은 현재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부품의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며 '21.2분기부터 스마트폰 등의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에는 자체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갤럭시A'·'갤럭시J' 등 중저가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퀄컴 AP가 탑재. 특히 3.17일 공개한 '갤럭시A52'·'A72'에도 퀄컴 스냅드래곤 720G AP와 750G AP 등이 채택
 - (애플) 퀄컴의 5G 모뎀칩을 공급받고 있는 애플도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

2) 수출 동향

□ 완제품·부분품이 동반 증가하며 전년 동월대비 15.0% 증가한 10.3억 달러 기록

- (품목별) '21.2월 휴대폰 수출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완제품 수출 회복과 더불어 부분품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달성
 - (휴대폰 완제품 : 4.3억 달러, 5.2% ↑) 5G 제품을 중심으로 한 '21년 스마트폰 시장 회복 전망과 함께 '갤럭시S21 시리즈'(21.1월 출시) 등 국내 업체의 신제품 출시 효과 및 프리미엄 제품 수출 증가 등으로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베트남(2.3억 달러, △14.6%), 중국(홍콩 포함, 2.7억 달러, 90.1% ↑), 브라질(0.1억 달러, △1.7%)
 - (휴대폰 부분품 : 6.0억 달러, 23.3% ↑) 글로벌 업체向 부품 공급 확대 등 해외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증가로 카메라 모듈, RFIC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호조세 지속
- (지역별) 미국·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중국(홍콩 포함)·EU 등으로는 선전
 - 중국(홍콩 포함, 2.8억 달러, 68.6% ↑)은 완제품(△54.6%) 수출이 감소했으나 현지 및 글로벌 업체向 공급 증가로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90.1% ↑)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성장세 지속
 -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2.4억 달러, △25.7%)은 애플 등 경쟁 업체의 선전 등으로 완제품(△29.3%) 수출이 부진하면서 다시 감소세로 반전
 - 베트남(2.3억 달러, △15.1%)은 RFIC 등은 증가했으나 모바일 AP, PCB, 카메라모듈 등 부분품(△14.6%)과 완제품(△58.9%)이 동반 감소하면서 하락세로 반락
 - EU(1.2억 달러, 205.7% ↑)는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증가 등으로 완제품(290.4% ↑) 수출 호조와 더불어 부분품(53.2% ↑)이 동반 성장하면서 세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 시현

그림 1-7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SA, 2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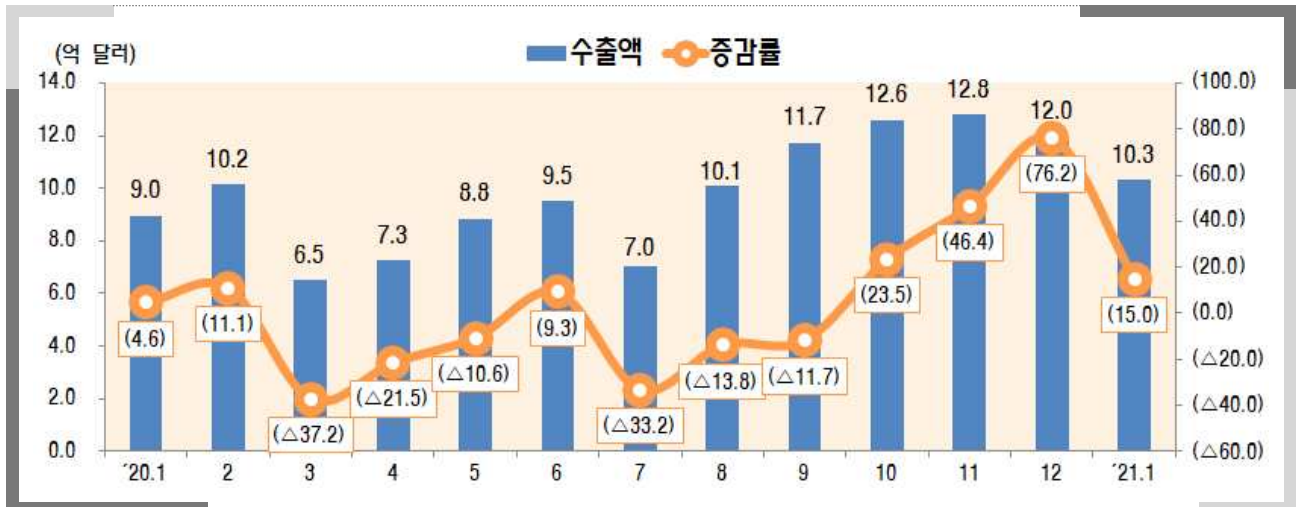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	3	4	5	6	7	8	9	10	11	12	'21.1	2
휴대 단말기	9.0 (4.6)	10.2 (11.1)	6.5 (△37.2)	7.3 (△21.5)	8.8 (△10.6)	9.5 (9.3)	7.0 (△33.2)	10.1 (△13.8)	11.7 (△11.7)	12.6 (23.5)	12.8 (46.4)	12.0 (76.2)	10.3 (15.0)
완제품	4.1 (△11.0)	4.8 (20.8)	3.0 (△43.6)	3.4 (△15.4)	3.7 (△24.4)	3.8 (20.6)	2.0 (△39.8)	3.3 (32.6)	3.7 (△16.8)	4.0 (16.8)	3.1 (△11.3)	3.8 (87.4)	4.3 (5.2)
부분품	4.9 (22.8)	5.3 (3.6)	3.5 (△30.5)	3.8 (△26.2)	5.2 (2.7)	5.7 (2.7)	5.1 (△30.3)	6.9 (△26.1)	8.0 (△9.2)	8.6 (26.9)	9.7 (85.1)	8.1 (71.5)	6.0 (23.3)

자료 : IITP, KTSPI

그림 1-8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2월 당월			2월 누적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1		베트남	31.9	15.9	28.4	중국	2.6	88.8	25.0	6.8	137.7
2		중국	29.1	7.0	25.9	미국	2.4	-25.7	22.8	5.2	12.7
3		미국	25.0	-30.4	22.2	베트남	2.3	-15.1	22.5	5.2	1.7
4		영국	3.9	218.5	3.5	독일	0.5	621.0	5.3	0.8	139.5
5		홍콩	3.8	8.8	3.3	영국	0.5	642.6	5.2	0.7	448.1
6		독일	2.7	-7.8	2.4	캐나다	0.3	241.9	3.3	0.5	262.3
7		일본	2.0	18.2	1.8	일본	0.2	92.8	2.1	0.5	82.5
8		캐나다	1.9	-57.0	1.7	홍콩	0.2	-26.8	2.1	0.5	10.8
9		브라질	1.3	33.2	1.1	네덜란드	0.1	150.8	1.3	0.2	142.7
10		인도	1.1	25.9	1.0	폴란드	0.1	151.9	1.3	0.3	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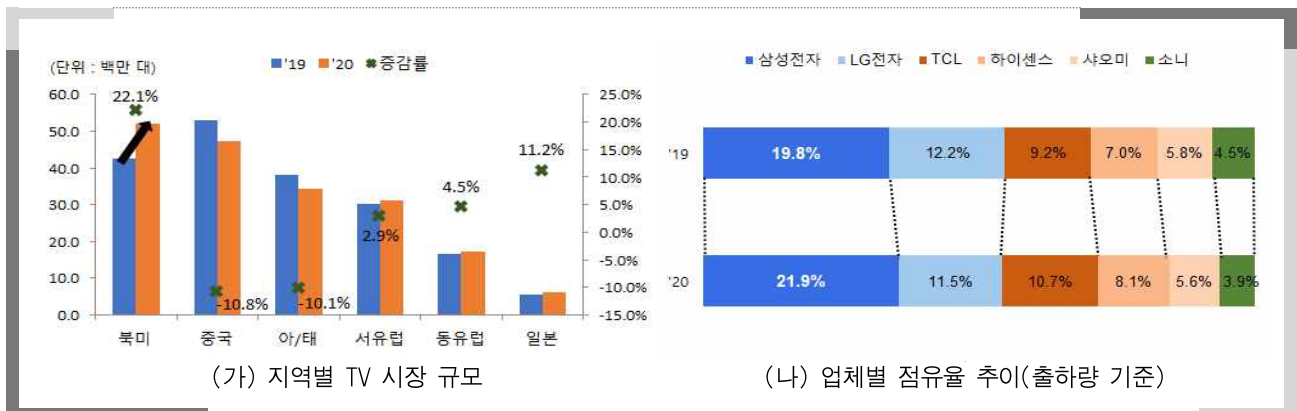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 올해 도쿄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TV 시장 보급률 확대가 기대

- (시장 규모 및 전망) '20년 TV 시장은 코로나19 수혜로 소폭 성장(OMDIA, '21.3월)
 - 지난해 TV 시장(2억 2,535만 대, 1.1%↑)은 스포츠 특수 부재, 물류 이동 제한 등으로 악영향이 우려됐으나, 예기치 못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TV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성장 기록
 - (지역별) 북미 지역(5,194만 대, 22.1%↑)은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소비자들의 TV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중국(4,738만 대, △10.8%)을 제치고 TV 판매국 1위(23.0%)에 등극
 - 마찬가지로 서유럽(3,103만 대, 2.9%↑), 동유럽(1,729만 대, 4.5%↑), 일본(618만 대, 11.2%↑) 등의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TV 수요가 관측되면서 글로벌 TV 시장 성장에 기여
 - '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산 진정세 등으로 도쿄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특수 TV 시장 성장이 기대. 특히 해외 관중의 입국을 받지 않는 형식으로 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프리미엄 TV의 시장 대중화도 기대
 - ※ 3.25일 후쿠시마에서 시작한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도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만 생중계 진행
 - (경쟁 동향) 삼성전자는 지난해 TV 시장(금액 기준)에서 프리미엄 QLED TV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역대 최대 점유율인 31.9%를 차지하며 15년 연속 글로벌 1위를 달성. 출하량 기준(4,928만 대, 11.8%↑)으로도 3년 만에 20% 대로 재진입하면서 1위(21.9%)를 수성
 - LG전자는 지난해 OLED TV 연간 출하량(204.7만 대, 23.8%↑)이 사상 처음 200만 대를 돌파해 눈길. TV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11.5%로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됐으나 2위를 유지

그림 1-9 | 지역별 TV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출하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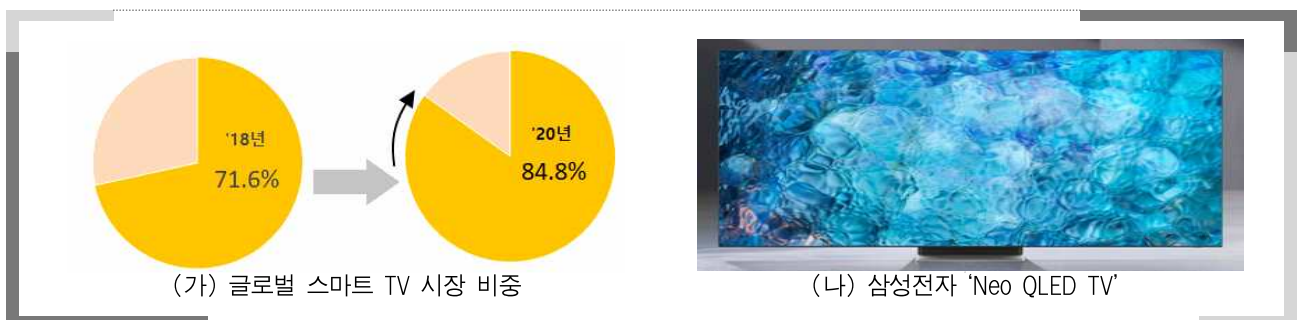
자료 : OMDIA, 2021.3.

□ 국내 양사, 올해 주력 라인업 대거 공개, 프리미엄 TV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

- 삼성전자는 ‘Neo QLED TV’, LG전자는 ‘OLED TV’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
 - (삼성전자) 올해 프리미엄 TV 시장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는 ‘Neo QLED TV’를 총 8개의 라인업 (4K는 50·55·65·75·85인치, 8K는 65·75·85인치)으로 구성해 경쟁 업체보다 앞선 3.3일 출시
 - 미니 LED, ‘Neo 퀀텀 매트릭스·Neo 퀀텀 프로세서’ 등을 적용해 화질을 최적화해주는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성능 강화와 더불어, 화면 분할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 환경을 넓히거나 재택근무에 적합한 스마트 모니터, 인테리어용 디지털 액자 등 TV 역할의 활용성도 확대
 - (LG전자) 여전히 OLED TV를 핵심 제품으로 내세우며 올해는 기존 R/Z/G/C 시리즈에서 보급형 B/A 시리즈를 추가 구성해 시장에 참여. 경쟁 업체의 미니 LED TV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으로 분석

- 한편 글로벌 TV 시장 경쟁 구도가 하드웨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로도 확장되는 추세
 - 전 세계 TV 시장에서 스마트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년 71.6%→'20년 84.8%로 증가. '24년에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을 아우르는 TV 기술 확보가 미래 글로벌 TV 시장 경쟁력으로 부상할 전망(한국경제, 2.24일, 원소스 OMDIA)
 - (삼성전자) 3.3일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미래 TV 시장은 하드웨어적인 단순 화질 경쟁보다 게임, 건강 등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돕는 SW 측면의 콘텐츠 플랫폼(스마트 싱스 IoT 등)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올해 ‘스크린 플랫폼’으로서의 새로운 TV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 선언
 - (LG전자) 자사의 스마트 TV에 적용하고 있는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webOS(웹OS)’를 앞세워 TV 플랫폼 사업에 진출(2.24일). 연내 전 세계 20여 개 TV 업체가 webOS를 탑재 출시할 예정
 - ※ 동사가 webOS TV 플랫폼 공급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로는 NETFLIX, prime video, YouTube, Rakuten TV, DAZN, CEVA, DOLBY, Gracenote, NUANCE, UNIVERSAL ELECTRONICS, Aiwa 등이 존재
 - 동사는 TV 사업에서의 디지털전환(DX)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TV 사업을 소프트웨어 분야로도 확장해 TV 콘텐츠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1-10 | 글로벌 스마트 TV 시장 비중 및 삼성전자 신제품 이미지



자료 : 한국경제, 2.24. (원소스 OMDIA) / 언론 자료 인용



2) 수출 동향

□ '21.2월 TV 수출은 부분품 수출 감소 등으로 36.2% 하락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흐름

- (품목별) 국내 업체의 TV 생산 공장 해외 이전에 따라 OLED TV 감소폭이 점차 확대, 다만 부분품 수출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추세
 - (LCD TV : 0.02억 달러, $\Delta 93.0\%$) 미국($9.2\% \uparrow$), 네덜란드($382.5\% \uparrow$) 등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인도($\Delta 85.8\%$), 독일($\Delta 49.8\%$), 캐나다($\Delta 68.3\%$) 등의 내림세로 부진 장기화
 - (OLED TV : 0.01억 달러, $\Delta 89.9\%$) OLED TV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 재편(구미→인도네시아)으로 '20.11월부터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감소세 지속
 - (부분품 : 0.8억 달러, $\Delta 13.6\%$) 베트남·브라질 수출은 여전히 하락세이나 폴란드·인도네시아 등의 양호한 흐름과 멕시코의 수출 반등으로 역성장세가 다소 둔화
- (지역별) 멕시코·폴란드·인도네시아 등은 두 자릿수 대로 성장했으나 베트남 등은 감소
 - 프리미엄 북미 지역의 핵심 생산 거점인 멕시코(0.3억 달러, $49.9\% \uparrow$)는 부분품 수출($50.0\% \uparrow$)을 중심으로 장기간 부진을 탈피하며 1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해 눈길
 - 유럽 지역의 주요 생산 거점인 폴란드(0.1억 달러, $40.5\% \uparrow$)는 OLED TV 수출($\Delta 12.3\%$)의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분품 수출(0.1억 달러, $43.4\% \uparrow$)이 호조세를 보이며 성장을 주도
 - 지난해 국내 업체가 수익성 증대를 위해 국내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로 재편하면서 인도네시아 수출(0.04억 달러, $91.2\% \uparrow$)은 부분품($100.9\% \uparrow$)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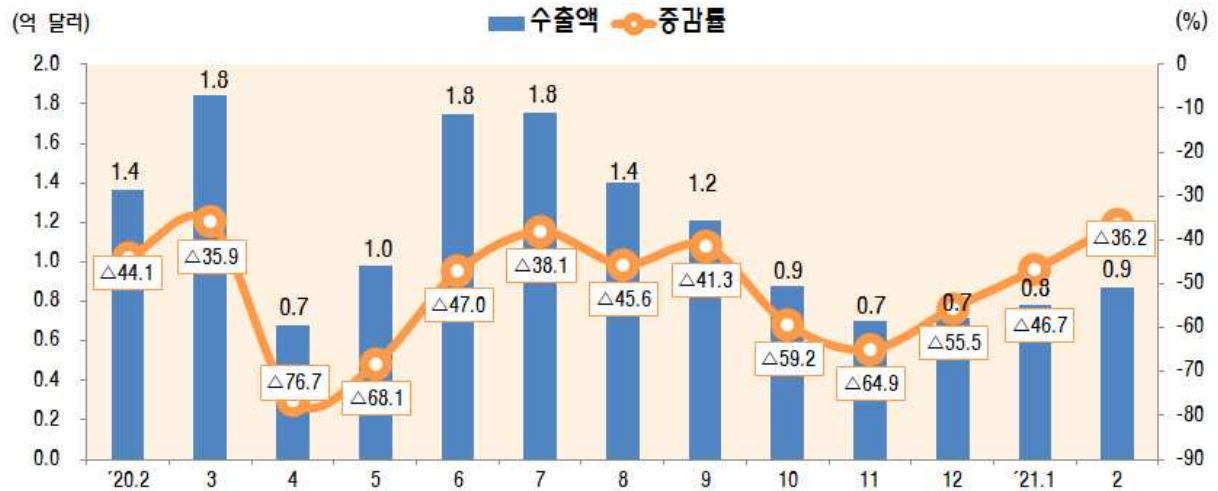
표 1-10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	3	4	5	6	7	8	9	10	11	12	'21.1	2
D-TV	1.4 ($\Delta 44.1$)	1.8 ($\Delta 35.9$)	0.7 ($\Delta 76.7$)	1.0 ($\Delta 68.1$)	1.8 ($\Delta 47.0$)	1.8 ($\Delta 38.1$)	1.4 ($\Delta 45.6$)	1.2 ($\Delta 41.3$)	0.9 ($\Delta 59.2$)	0.7 ($\Delta 64.9$)	0.7 ($\Delta 55.5$)	0.8 ($\Delta 46.7$)	0.9 ($\Delta 36.2$)
LCD TV	0.3 ($\Delta 0.5$)	0.4 ($\Delta 15.3$)	0.2 ($\Delta 50.9$)	0.2 ($\Delta 49.9$)	0.3 ($\Delta 12.0$)	0.2 ($\Delta 37.7$)	0.1 ($\Delta 62.3$)	0.0 ($\Delta 94.4$)	0.0 ($\Delta 91.2$)	0.0 ($\Delta 95.5$)	0.0 ($\Delta 95.3$)	0.0 ($\Delta 93.3$)	0.0 ($\Delta 93.0$)
OLED TV	0.1 ($\Delta 29.5$)	0.1 (28.6)	0.1 (17.2)	0.1 ($\Delta 13.0$)	0.1 (116.5)	0.1 (87.3)	0.1 (4.3)	0.1 ($\Delta 2.9$)	0.1 (10.3)	0.0 ($\Delta 74.7$)	0.0 ($\Delta 79.7$)	0.0 ($\Delta 92.9$)	0.0 ($\Delta 89.9$)
부분품	1.0 ($\Delta 51.8$)	1.4 ($\Delta 42.3$)	0.3 ($\Delta 85.3$)	0.7 ($\Delta 72.3$)	1.4 ($\Delta 53.7$)	1.4 ($\Delta 41.6$)	1.2 ($\Delta 44.8$)	1.1 ($\Delta 33.0$)	0.7 ($\Delta 59.0$)	0.7 ($\Delta 59.8$)	0.7 ($\Delta 48.4$)	0.8 ($\Delta 28.0$)	0.8 ($\Delta 13.6$)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2월 당월				1~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3.4	-60.7	22.9	멕시코	0.3	49.9	39.1	0.5	16.5	32.8
2	베트남	1.7	-48.8	11.2	폴란드	0.1	40.5	15.4	0.3	66.3	17.2
3	폴란드	1.4	26.0	9.5	베트남	0.1	-52.0	7.6	0.2	-48.4	9.1
4	브라질	1.0	-56.5	7.1	브라질	0.0	-46.2	5.6	0.1	-27.9	7.6
5	이집트	0.7	-53.4	4.6	미국	0.0	-31.4	4.6	0.1	-31.1	4.5
6	UAE	0.6	-17.9	4.4	인도네시아	0.0	91.2	4.4	0.1	113.0	4.7
7	일본	0.5	-25.6	3.7	아르헨티나	0.0	166.3	4.0	0.1	120.8	3.6
8	인도	0.5	-8.6	3.4	이집트	0.0	-40.5	3.7	0.1	-55.4	4.0
9	인도네시아	0.5	6.7	3.1	인도	0.0	-6.6	2.5	0.0	-17.5	2.5
10	홍콩	0.4	-31.2	3.0	러시아연방	0.0	-36.5	2.4	0.0	-33.0	2.9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 올해 PC 시장은 비대면 수요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시장 전망) '21년 글로벌 PC 시장은 작년(12.9%↑)에 이어 견고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
 - 지난해 드라이버 IC, GPU 등의 부품 공급난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된 데 이어 올해 PC 시장(3억 5,740만 대, 18.5%↑)도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여전한 수요 강세에 따라 두 자릿수 성장세를 구가할 전망(IDC, '21.3월)
 - 다만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2월부터 시작된 백신 보급 등으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차츰 정상화 상태에 진입하면서 '21년 중반부터는 PC 공급물량 회복, 수요 감소로 공급-수요 간 격차가 줄어들며 균형을 이룰 것으로 관측
 - '22년에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충족됨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전년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맞물리며 일시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일 전망
- Lenovo 혁신적인 폼팩터를 지닌 신제품 출시, Apple 주력 제품 전환 전략에 주목
 - (Lenovo) 세계 첫 폴더블 PC인 씽크패드 X1 폴드를 포함한 '씽크패드 X1' 시리즈 신제품 5종(폴드, 나노, 티타늄 요가, 카본 9세대, 요가 6세대 등)을 출시(2.25일)해 눈길
 - (Apple) 3.5일 전문가용 올인원 PC '아이맥 프로('17.12월 출시)' 생산을 중단기로 결정해 이목 집중. 남은 재고만 모두 판매한 뒤 자체 제작한 M1 칩을 탑재한 아이맥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
 - ※ '19년 높은 성능을 지닌 신형 맥프로가 PC 시장에 등장하면서 아이맥 프로가 판매 부진에 빠진 것으로 관측. 아이맥 프로는 출시 이후 큰 성능 변화가 없었던지라 경쟁력을 잃고 3년 3개월 만에 단종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분석

그림 1-12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Lenovo 신제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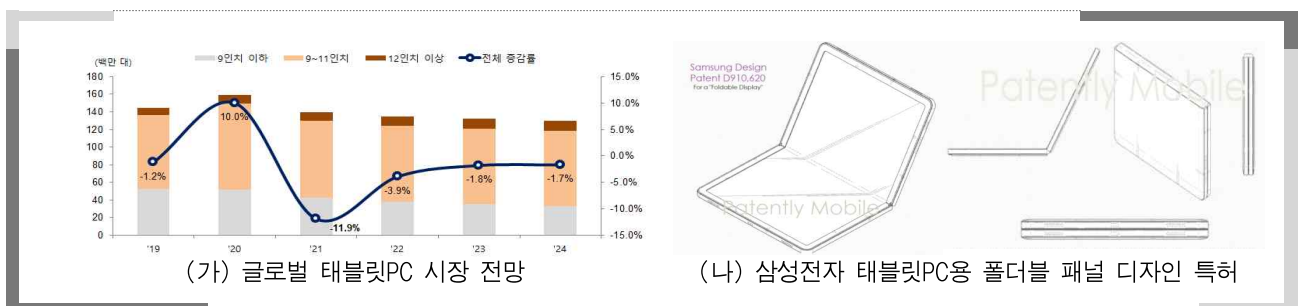


자료 : IDC, 2021.3. / 언론 자료 인용

□ (태블릿PC) 지난해 코로나19로 반짝 상승했으나 '21년엔 하락세에 재진입할 전망

- (시장 전망) '20년 태블릿PC 시장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호황을 보였으나 올해는 기저효과 등으로 역성장 전망
 - 올해 태블릿PC 시장은 슬레이트 제품(8,090만 대, △15.6%)과 키보드·모니터가 분리되는 디태처블 제품(5,910만 대, △6.4%)이 동반 감소하면서 11.9% 하락한 1.4억 대에 그칠 전망(IDC, '20.12월)
 - 다만 온라인 교육용 수요 등으로 12인치 이상(990만 대, 3.3%↑) 제품은 나홀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 (업체 동향) 폼팩터·디스플레이 등에 변화를 준 신제품을 개발 및 출시해 新수요를 공략
 - (삼성전자)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지를 아우를 수 있어 주요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집트 베니수에프 공장에 교육용 태블릿PC 생산라인 구축을 목적으로 3,000만 달러를 투자(3.5일)
 - 이집트는 생산 물량의 85%를 중동·유럽 남부·아프리카 등으로 수출하는 핵심 거점임과 동시에 젊은 인구 등으로 내수 시장도 잠재 수요가 다분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
 - 또한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에도 폴더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美 특허청(USPTO)으로부터 폴더블 디스플레이 디자인 특허를 끝내 승인(2.16일)받으며 '폴더블 대중화' 작업에 본격 착수
 - 이외에도 올해 6월내로 '갤럭시탭S7 라이트', '갤럭시탭A7 라이트' 등의 신제품을 출시해 중저가 태블릿PC 시장도 공략할 것으로 분석
 - ※ 갤럭시탭S7 라이트에는 12.4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2,560 × 1,600 해상도를 제공하고, 갤럭시탭A7 라이트에는 8.7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한 손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
 - (Apple)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21.4월 중에 출시될 전망
 - 해당 제품은 11인치, 12.9인치 두 개의 모델로 출시되며 12.9인치의 경우 최초로 미니 LED를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밝기, 선명도, 화질 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
 - 또한 아이패드 모델 최초로 '썬더볼트 포트'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디스플레이 및 그래픽 카드 추가 등 주변장치와의 폭넓은 호환성 등이 기대

그림 1-13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전망 및 삼성전자 태블릿PC용 폴더블 패널 디자인 특허



자료 : IDC, 2020.12./언론자료 인용



□ (SSD) '20년 시장(332.1억 달러, 51.3%↑), 처음으로 300억 달러 돌파(IDC, '21.2월)

- (시장 규모 및 전망) 지난해 SSD 시장은 SSD 가격 회복과 코로나19發 비대면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 (소비자용) 뉴노멀 시대에 따른 비대면 수요와 신제품 게이밍 수요 등이 팽창하면서 출하량(3억 751만 대, 19.0%↑)과 매출액(161.1억 달러, 44.1%↑)이 동반 상승
 - (기업용) 상반기 글로벌 기업들의 재고 축적을 위한 수요 확대로 출하량(4,754만 대, 30.9%↑), 매출액(168.0억 달러, 59.6%↑) 모두 호조 특히 기업용 매출액이 소비자용 시장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서 눈길
 - 한편 '21.2월 삼성전자의 美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SSD용 컨트롤러 칩 공급에 차질이 발생. 이로 인해 '21.2분기 SSD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
- (경쟁 현황) '20년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부동의 글로벌 1위 수성을 지속
 - (출하량 기준) 삼성전자(8,507만 대, 9.4%↑)는 23.1%의 점유율로 1위를 수성하고 있으나 점유율이 지속 하락중인 상황. WD(6,282, 31.0%↑)는 신제품을 중심으로 17.0%를 차지하며 2위를 유지
 - 인텔을 인수한 SK하이닉스(3,733만 대, 38.5%↑)는 '19년 대비 1단계 상승해 3위를 기록. 뒤이어 키옥시아(3,400만 대, 40.6%↑)와 킹스톤(2,944만 대, 3.0%↑)이 각각 9.2%, 8.0%로 4, 5위에 랭크
 -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31.0%), 인텔(13.8%), WD(11.6%), 키옥시아(8.2%)는 2년 연속 같은 순위를 기록. 다만 SK하이닉스(7.3%)는 마이크론(7.0%)을 제치고 5위로 반등해 눈길

2) 수출 동향

□ '21.2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기저효과 등으로 17개월 만에 하락 전환

- (품목별) 주변기기 수출의 내림세로 전체 수출은 5.6% 감소한 10.7억 달러를 기록
 - (컴퓨터 : 1.5억 달러, 16.6%↑) 완제품 소형컴퓨터(0.2억 달러, 20.4%↑)와 컴퓨터 부품(1.3억 달러, 23.4%↑)의 호조세로 10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 (주변기기 : 9.2억 달러, △8.5%) SSD 수출(7.8억 달러, △6.3%) 감소, 모니터 수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주변기기 수출은 2개월 연속 하락 기록
- (지역별) 기저효과, SSD 수요 둔화 등으로 주요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등) 수출 감소
 - 중국(홍콩 포함, 4.2억 달러, △7.7%)은 컴퓨터 수출(1.2억 달러, 25.0%↑)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주변기기 수출(3.1억 달러, △16.0%)이 하락 전환하면서 3개월 만에 내림세로 재진입

- 미국(3.2억 달러, △7.7%)은 SSD 수출(2.6억 달러, △12.8%) 감소로 하락세가 여전하나 전월(△28.3%) 대비 감소폭은 둔화

표 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	3	4	5	6	7	8	9	10	11	12	'21.1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3 (87.8)	12.3 (77.5)	10.8 (85.2)	12.1 (72.4)	12.6 (83.1)	12.1 (68.7)	13.4 (98.1)	12.9 (62.7)	10.0 (5.8)	10.4 (4.4)	11.5 (13.5)	9.9 (2.6)	10.7 (△5.6)
컴퓨터	1.3 (△19.0)	1.5 (△19.3)	1.5 (△6.5)	1.7 (0.2)	1.7 (13.2)	2.0 (16.4)	1.7 (19.5)	2.0 (30.0)	1.8 (12.0)	2.0 (25.8)	2.1 (19.8)	1.6 (23.4)	1.5 (16.6)
부품	1.0 (△21.9)	1.1 (△21.2)	1.3 (△1.5)	1.5 (5.4)	1.4 (23.0)	1.6 (19.1)	1.5 (24.9)	1.7 (48.9)	1.5 (11.5)	1.7 (34.8)	1.7 (37.3)	1.4 (25.9)	1.3 (23.4)
주변기기	10.0 (126.6)	10.8 (112.9)	9.3 (120.2)	10.4 (95.5)	10.9 (103.0)	10.1 (85.3)	11.6 (119.5)	10.9 (70.4)	8.2 (4.6)	8.4 (0.4)	9.4 (12.2)	8.3 (△0.7)	9.2 (△8.5)
보조기억 장치	8.3 (170.2)	8.5 (174.9)	8.3 (250.4)	9.6 (160.2)	9.7 (152.2)	8.4 (123.5)	10.2 (165.9)	9.5 (97.6)	6.8 (11.3)	6.9 (7.3)	8.0 (21.9)	7.0 (1.9)	7.8 (△6.1)
프린터	0.3 (△24.5)	0.3 (△28.6)	0.3 (△8.7)	0.2 (△40.3)	0.3 (△14.3)	0.3 (△23.4)	0.3 (△12.3)	0.4 (4.8)	0.3 (1.1)	0.3 (△0.6)	0.3 (3.8)	0.3 (19.9)	0.3 (30.2)
모니터	0.6 (2.5)	0.7 (△17.1)	0.4 (△54.6)	0.3 (△65.1)	0.3 (△54.9)	0.4 (△50.7)	0.4 (△45.0)	0.4 (△36.7)	0.4 (△47.0)	0.5 (△41.6)	0.5 (△32.7)	0.4 (△44.0)	0.5 (△28.2)

자료 : IITP, KTSPI

그림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2월 당월				1~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45.3	95.8	32.6	중국	3.2	-8.0	30.3	6.2	-2.2	30.0
2	중국	41.1	28.6	29.6	미국	3.2	-7.7	30.2	5.6	-17.8	27.3
3	홍콩	12.5	77.9	9.0	홍콩	1.0	-6.7	9.0	1.8	9.6	8.9
4	일본	5.0	46.1	3.6	일본	0.4	-44.3	3.4	0.8	-21.2	3.8
5	멕시코	3.5	54.3	2.5	멕시코	0.3	28.1	3.0	0.8	62.9	4.0
6	대만	3.2	130.3	2.3	네덜란드	0.3	56.1	2.9	0.6	45.8	2.8
7	네덜란드	3.0	47.2	2.1	대만	0.3	26.2	2.6	0.7	69.0	3.6
8	독일	2.6	46.1	1.9	오스트리아	0.3	29.7	2.4	0.6	71.7	2.8
9	체코	2.3	211.6	1.7	폴란드	0.2	25.2	1.8	0.3	-5.6	1.4
10	오스트리아	2.2	93.4	1.6	싱가포르	0.2	17.1	1.8	0.4	27.1	1.8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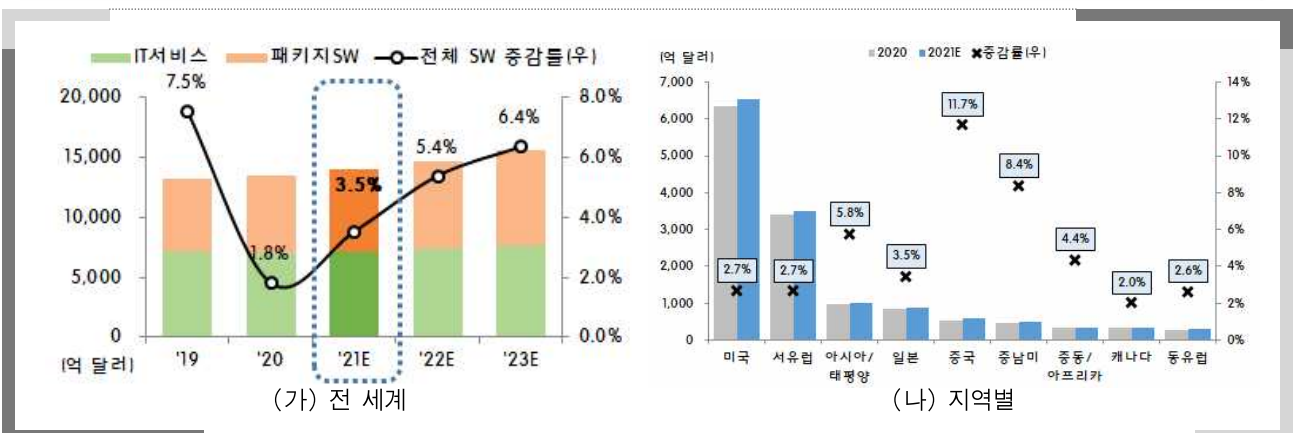
7 SW

1) 수출 환경

□ 글로벌 SW 시장은 성장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성장 전망

- (시장 전망) 비대면 관련 수요와 더불어 신규 시장 확산으로 '21년 SW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 3,973억 달러로 오름세가 예상(IDC, '21.1월)
 - (IT서비스 : 7,177억 달러, 1.9%↑)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신규 투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패키지SW : 6,796억 달러, 5.3%↑)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환경 구축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 필수 요소 및 클라우드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한편 사업과 업무 현장에 AI(인공지능)를 적용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IoT(사물인터넷)·VR(가상현실) 등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면서 관련 SW 시장 확대도 기대
- (지역별) 비대면 환경 구축에 따른 SW 투자 확대로 모든 지역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은 투자 및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11.7% 늘어난 596억 달러로 '20년(10.0%↑)에 이어 두 자릿수 오름세를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 아시아/태평양(5.8%↑)·중남미(8.4%↑) 등도 5~8%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 시장도 올해 각각 2.7%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성장률 대비 증가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
 - 일본(3.5%↑)·중동/아프리카(4.4%↑)·캐나다(2.0%↑)·동유럽(2.6%↑) 등은 '20년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1년에는 2~4%대 성장세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

그림 1-15 전 세계 및 지역별 SW 시장 전망






자료 : IDC Blackbook, 2021.1.



□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기반 마련 및 신시장 진출을 도모

- 삼성SDS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직정비, SK C&C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확충, LG CNS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시장 진출 및 신사업 기반을 마련

표 1-14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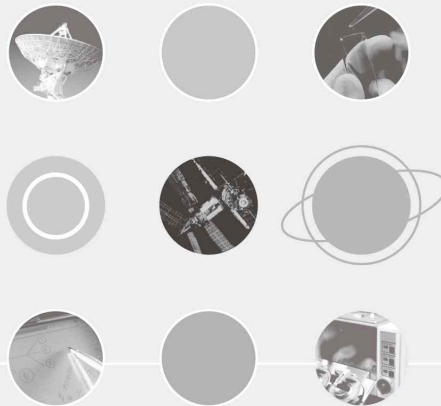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조직개편을 통해 'DT(디지털 전환) 플랫폼 추진단'을 신설하며 향후 DT 사업에 집중할 계획 - '21년 글로벌 IT서비스 시장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기업의 DT 투자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DT 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해 사업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ERP·SCM 등 차세대 시스템 구축 수요에 대응해 고객사의 경쟁력 제고와 업무혁신을 지원한다는 전략 - 또한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DT 사업 확대에 집중해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을 목표 - 비대면 업무환경 확대에 의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과 DT를 준비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클라우드와 자사 통합 디지털 플랫폼 결합, 미국 지사 설립 등 글로벌 진출을 준비 - SK C&C는 '멀티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제조, 유통 등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 이를 위해 '21.2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와 산업별 디지털 혁신 플랫폼 및 솔루션의 공동개발 및 국내외 서비스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 '멀티버스'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주요 플랫폼과 솔루션을 집대성한 SK C&C의 통합 디지털 플랫폼 - 한편 SK C&C는 3.9일 미국 조지아주에 현지법인을 다시 개소했으며 지사는 북미 시장에 SK그룹 계열사의 IT인프라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한국법인의 현지 IT파트너와 소통을 담당할 예정 ※ SK C&C는 '10년 미국 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나 이후 사업을 중단.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30억 달러의 공장을 건설하는 등 조지아주가 SK그룹의 미국 사업 거점으로 부상하자 재진출을 결정 - 이번 지사 설립을 통해 SK C&C는 SK그룹 계열사들에 IT 및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향후 북미 IT분야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 및 '멀티버스'의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대비한 신한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플랫폼 시범 구축을 완료('21.3월) -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디지털화폐의 원활한 시중 유통 및 사용을 위한 중개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시범 구축 - 디지털화폐 플랫폼은 가상의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해 중개기관에 유통, 중개기관인 신한은행은 발행된 CBDC를 개인에게 지급, 개인 및 가맹점은 발행된 CBDC를 활용해 조회·결제·송금·환전·충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형 방식으로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 디지털화폐 플랫폼 개발 시나리오 〉</p>  <p>자료 : 신한은행</p>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II

트레이드 GPS





II

트레이드 GPS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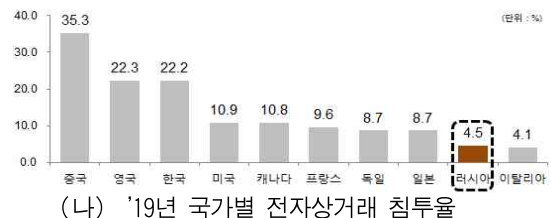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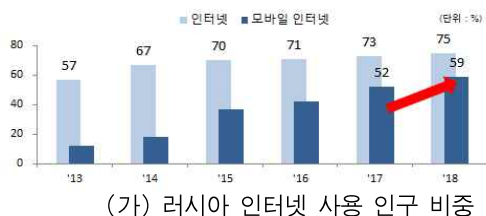
1

비대면 시리즈② 러시아 - SSD

□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5~'19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26.5%)이 영국(11.2%)·한국(24.7%)·미국(15.1%) 등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성에 주목(KIEP, '20.8월)
 - ※ 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평균 성장률(21.6%)도 상회하는 수치로 눈길
- 인터넷 보급률, PC·모바일 사용자 등의 증가와 더불어 이번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유통 구조가 오프라인→온라인 채널로 변화하면서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18년 198억 달러→'23년 534억 달러(약 4조 루블)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무역경제신문, '20.5월)
 - ※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19년 기준 4.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년 코로나19,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의 영향으로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이 기대
- 게다가 코로나19로 경기 둔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층이 두터워지면서 해외 결제 편의성, 가격 경쟁력 등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
 - ※ 일례로 러시아 전자상거래 중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부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간 성장률이 89%('19년)였으나 코로나19가 발발한 '20년 691%로 급격히 성장(KOTRA, '21.3월)
- 러시아 정부도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2025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을 발표('19.9월)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
 - ※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침투율 20%로 제고 △소매점 전자상거래 활용률 70% 이상 △만 12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 80%로 제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 10%로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액 5% 이상 증대 △러시아 전자상거래 분야 판매자 수 10만 명 이상 달성 등으로 구성
- 이외에도 물류시스템 개선, B2B·C2C 전자상거래 활성화(B2C 거래가 주류) 등을 추진 중인 상황

그림 2-1 | 러시아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 및 2019년 국가별 전자상거래 침투율



자료 : KIEP, 2020.8. 재가공

2)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참고) 러시아 전자상거래³⁾ 시장 및 업체 동향

- 코로나19 수혜로 급성장한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 팬데믹 이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게임, 티켓, 음식 배달업 등은 제외)은 '23년까지 2.4조 루블(약 338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팬데믹 이후 '20년 말 이미 2.5조 루블(340억 달러)을 넘어서며 코로나19로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이 크게 앞당겨진 모양새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Wildberries, Ozon, Tiu.ru, Lamda, Beru, Joom 등이 선도 코로나19 발발로 의무격리 등이 시행되면서 특히 Ozon의 경우 '20.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8%로 급등하며 458억 루블(6.45억 달러)을 기록
 - 마찬가지로 Wildberries도 동 기간 123%의 성장세를 보이며 1,034억 루블(14.5억 달러)을 달성. 이는 러시아 전자상거래 역사상 가장 높은 실적으로 관측
 - '20년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 수혜, 업체들의 배송방식 개선 등의 시너지로 급격히 발전함과 동시에 시장 안정화 및 침투율 확대도 꾀한 것으로 분석. 향후 물류인프라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점차 확대되면서 관련 데이터 축적 비중도 급증할 전망

○ 이에 따라 수집되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해 러시아 내 데이터센터 필요성이 대두
 < '19.11~' 20.4월 러시아 주요 전자상거래(마켓플레이스) 방문 고객 수 추이 및 주요 업체별 특징 >



주요 업체명	세부 내용
Wildber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최대 다중 카테고리 마켓 플레이스 주요 판매 제품 :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안면마스크, 식기 세척기 등
Oz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2위 다중 카테고리 마켓 플레이스 주요 판매 제품 : 전자제품, 소비재, 의류 및 홈뷰티 등
J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판매 제품 :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 여성 의류,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자료 : RDV Market, KOTRA, 2021.3. 재가공

주) '19년 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11~12월) 이후에도 '20.4월까지 고객 수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코로나19 수혜로 풀이

□ 러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급증, 데이터센터⁴⁾ SSD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국가

- 러시아 빅데이터 시장은 '24년 3,000억 루블(약 42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KOTRA, '20.11월)
 - 러시아 정부는 '24년까지 디지털 혁신 달성을 목표로 '러시아 연방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를 시행
 - ※ 해당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시장 고도화를 위해 10개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8개의 백본 데이터 처리 센터 설립, 글로벌 데이터 저장·처리 서비스 부문에서 자국 점유율을 10%로 제고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포

3) 여기서 일컫는 전자상거래는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로 다양한 판매업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 여러 사이트에서 수집해 자사의 웹사이트에 한 번에 표시하는 애그리게이터(Aggregator)와는 다른 의미



-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확대, 챗봇·가상비서 등을 구현하는 대화형 플랫폼 구축,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상위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티 건설 등을 적극 추진
 - ※ 러시아 기업 Yandex는 '17.10월 지능형 비서 엘리스를 소개한 데 이어 '18.7월 러시아 시장을 위해 설계한 최초의 스마트 스피커 Yandex.Station도 공개. 또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 업체인 Tinkoff Bank는 '19.6월 금융 및 라이프 스타일 관련 작업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Oleg'를 출시
-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까지 확산되면서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행보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 인공지능(AI) 발전, 데이터 폭증 등에 따라 러시아 빅데이터 시장의 비약적 성장이 기대
- 러시아 IT 시장 성장 등으로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산업이 증가하면서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집중, 데이터센터向 SSD 수요도 촉진되는 모양새
 - IT 산업 발전, 게임 등 비디오 콘텐츠 수요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확대, 금융 플랫폼 구축 등으로 러시아 내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업체들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이 활발
 - Rosatom은 '22.하반기부터 1,000개가량의 랙을 갖춘 상당히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본격 건설할 예정. 러시아 내 데이터센터 시장 장악력도 확대해 나갈 전망
 - 러시아의 통신기업인 MTS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 약 17억 루블을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립. 이어 '20.10월 최초의 모듈식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8억 루블 규모를 추가 투자
 - 이외의 러시아 기업들도 5G, IoT 기술 개발에 따라 데이터 처리 속도·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센터 증축에 매진.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신설과 맞물려 러시아 SSD 수요도 동반 성장할 전망

□ (업체 동향) 낸드플래시 기술 경쟁을 바탕으로 SSD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에 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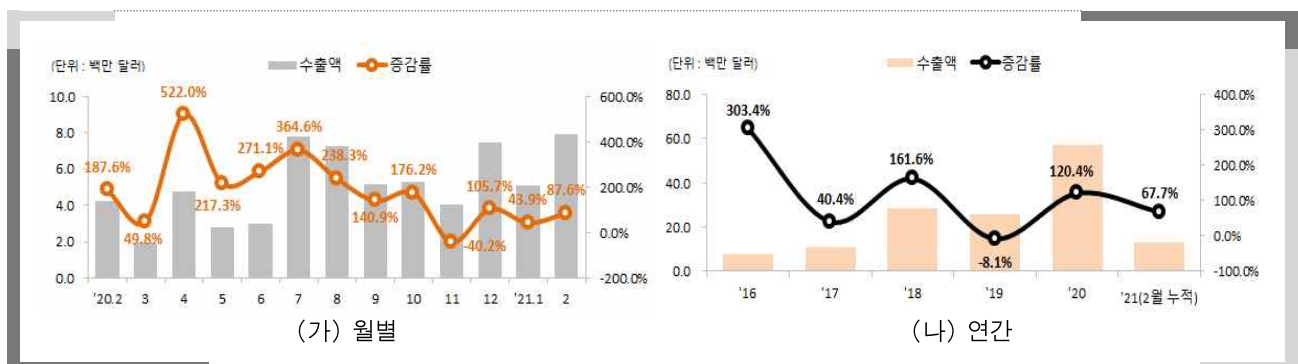
- 글로벌 업체들은 SSD 수입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시장 특성을 겨냥해 신제품 출시 및 라인업 강화 전략 등을 채택
 - (삼성전자) 업계 최초 6세대 V낸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전용 'PM9A3 E1.S SSD'를 출시한 (2.24일) 데 이어 소비자용 'NVMe SSD 980'도 공개(3.10일)
 - PM9A3 E1.S는 전력 효율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데이터센터 운영비용 절감 및 탄소 저감 효과 등에 탁월. 연속 쓰기 속도도 이전 대비 50% 향상됐고 임의 읽기·쓰기 속도는 각각 40%, 150%가량 개선
 - 소비자용 NVMe SSD 980은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최대 3,500MB/s, 3,000MB/s이고, 임의 읽기·쓰기는 500K IOPS, 480K IOPS의 성능을 제공하며 250GB, 500GB, 1TB 라인업으로 구성돼 있는 점이 특징
 -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요 증가, 게이밍 등 집콕 소비 확대로 기업·소비자용 SSD 수요가 촉진 되면서 러시아 내 동사의 지배력 확대가 기대

- (인텔) 144단 QLC 낸드 기반으로 효율성과 보안을 강화한 데이터센터용 ‘D7-P5510 SSD’를 출시(3.5일)
- 해당 제품은 3.84TB, 7.68TB 용량을 제공하며 연속 읽기·쓰기 속도는 최대 6,500MB/s, 3,400MB/s, 임의 읽기·쓰기 속도는 최대 700K IOPS, 170K IOPS를 갖춘 것으로 관측
- (WD) 일반 소비자용 포터블 SSD 제품 총 4종(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WD 블랙 P50 게임 드라이브, WD 마이패스포트)에 4TB 모델을 추가해 게이머,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의 편의성을 제고
- 최상위 제품인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는 최대 읽기·쓰기 속도가 2,000MB/s까지 향상돼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

□ (수출 동향) 디지털 전환 계획, 비대면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러시아 SSD 수출은 호황

- '21.2월 對러시아 SSD 수출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8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
- (월별)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면서 '20.4월 SSD 수출(477만 달러, 522.0%↑)은 500%를 웃도는 수준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 이후에도 '20.11월을 제외하고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 특히 '21.2월(792만 달러, 87.6%↑)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눈길
- (연간) 국제유가 변동, 루블 가치절하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러시아는 이를 극복키 위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 이에 따라 고효율 저장장치인 SSD 수요가 자극되면서 러시아 SSD 수출은 '13년부터 고성장을 지속한 데 이어 '17년(1,083만 달러, 40.4%↑) 1,000만 달러 대를 첫 돌파해 눈길
- 연이어 '18년(2,833만 달러, 161.6%↑) 수출도 크게 성장하며 3,000만 달러 규모에 육박해 주목
- 다만 '19년은 잠시 주춤했으나, 코로나19로 SSD 수요가 급증한 '20년 수출은 120.4% 늘어난 5,738만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21년(2월 누적, 1,300만 달러, 67.7%↑)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상승 가도를 유지할 전망

그림 2-2 월별 및 연간 對러시아 SSD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2 비대면 시리즈③ 노트북 PC

□ 비대면 국면 확대로 재택근무/원격수업 등이 확산되면서 노트북 PC 수요가 증가

- 높은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국의 통제 조치 시행으로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확대 등 비대면 실내 생활이 크게 확대되면서 온라인 환경에 필요한 PC, 특히 노트북 수요가 증가
 - (재택근무/스마트워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업무 공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 및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이 가속화
 - 기관·기업의 비대면 근무를 위해 영상회의, 메신저 등 온라인 협업도구 활용이 증가했으며 또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새로운 근무 환경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도입도 확대
 - ※ 원격근무 솔루션을 포함한 글로벌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UC&C) 시장은 '18년 342억 달러에서 연평균 7.1%씩 증가해 '23년 483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IDC, '19.5월)
 - (원격수업/에듀테크) 오프라인 강의 및 교육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반영한 온라인 강의와 교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 특히 코로나19로 원격학습이 일상화되면서 가상/증강 현실(VR/AR) 및 AI 기술에 기반한 에듀테크가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세계 이러닝 산업은 '22년 2,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AI·빅데이터·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산업은 '20년 2,270억 달러에서 '25년 4,040억 달러로 연평균 1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홀론IQ)
 - '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온라인교육·쇼핑·게임·스트리밍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 활용을 위해 PC 등이 필수 가전으로 주목
 - 특히 노트북 PC는 성능 및 크기 등 데스크톱 대비 가지고 있는 한계와 더불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고사양화, 대형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축소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원격 학습 증가 등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하면서 작업 편의성과 휴대성을 겸비한 노트북 PC가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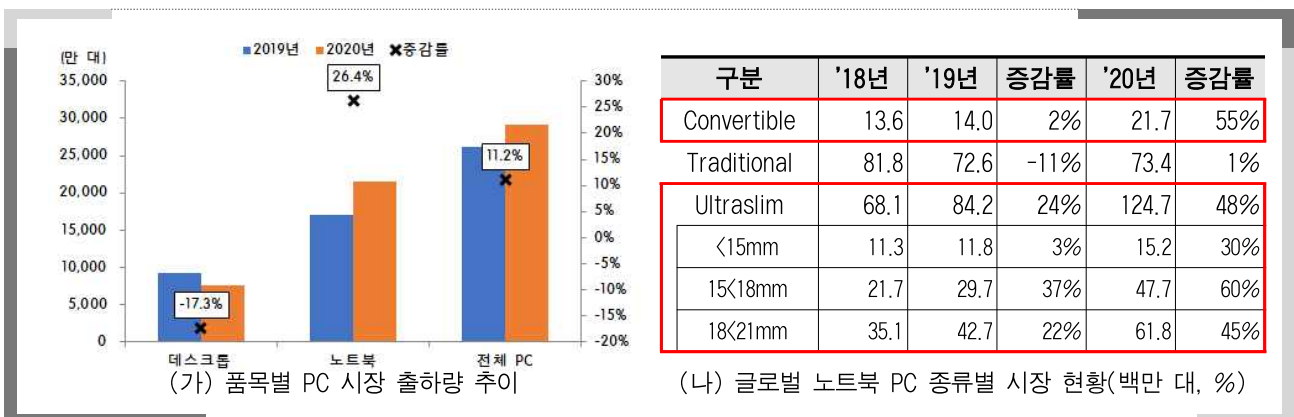
그림 2-3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및 에듀테크 시장 전망 추이



자료 : IDC, 2019.5. / 서울경제, 2020.9.10.(원소스 홀론IQ)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라 '20년 글로벌 PC 판매가 증가했으며 공간적 제약이 적은 노트북이 시장 성장을 견인(IDC, '21.1월)
 - '20년 글로벌 PC 판매량은 2억 9,130만 대로 전년 대비 11.2% 성장하며 두 자릿수의 가파른 증가세 시현. 당초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및 시장 교체수요 둔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PC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로 지난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
 - 특히 노트북 PC는 비대면 환경 속에서 휴대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6.4% 증가한 2억 1,580만 대를 기록, 글로벌 PC 시장 성장세를 견인. 전체 PC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년 65.2% → '20년 74.1%로 확대되면서 데스크톱 PC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
 - 반면 데스크톱 시장은 7,550만 대로 전년 대비 17.3% 감소했으며 PC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년 34.8% → '20년 25.9%로 축소되는 양상
 - 한편 '20년 휴대성이 극대화된 컨버터블 및 울트라 슬림 모델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50%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원격 접속과 휴대용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노트북 PC 수요는 향후에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
- ※ 한편 옴디아는 '20년 노트북 PC 출하량을 전년 대비 14.1% 증가한 1억 9,570만 대로 추정했으며 '21년에도 4.7% 증가하며 2억 4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20.10월)

그림 2-4 | 품목별 PC 시장 출하량 추이 및 글로벌 노트북 PC 종류별 시장 현황



자료 : IDC, 2021.1. /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노트북 P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품은 경량화·고사양화되는 추세

- 글로벌 노트북 PC 업체는 비대면·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초경량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배터리·CPU 등 성능 향상, 태블릿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출시
- (초경량) 채택근무·원격수업 등 공간적 제약이 적은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휴대성을 기본으로 성능 및 배터리 지속 시간이 뛰어난 1kg 미만 슬림 노트북에 관심이 집중.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본격 보급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노트북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성능 향상) 주요 노트북 PC 업체는 인텔의 최신 CPU '11세대 프로세서' 등을 탑재해 성능을 높였으며 향상된 성능으로 고성능·고효율 모바일 PC에 부여하는 '인텔 EVO 플랫폼' 인증을 획득
- (폼팩터 변화)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360도 회전 가능한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태블릿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2-in-1' 제품을 출시했으며 펜의 움직임까지 인식하는 '스마트 S펜' 등 기능도 지원

표 2-1 주요 업체별 노트북 PC 동향

업 체	내 용
 SAMSUNG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럭시 북' 신제품 3종(갤럭시 북 플렉스2, 갤럭시 북 플렉스2 5G, 갤럭시 북 이온2 등)을 출시('21.1월) -이번에 공개한 노트북 모델에는 인텔의 11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이 중 '갤럭시 북 13.3인치'와 '갤럭시 북 이온2 15.6인치'는 인텔이 고성능·고효율 모바일 PC에 부여하는 '인텔 EVO 플랫폼' 인증도 획득 -'갤럭시 북 플렉스2'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2-in-1' 노트북으로 활용 목적에 따라 태블릿 형태로도 폼팩터 변형이 가능. 또한 필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스마트 S펜'도 탑재 • 한편 삼성전자는 일부 노트북 모델에 OLED 패널을 탑재하면서 제품 차별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OLED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삼성디스플레이는 '21년 노트북용 OLED 패널 라인업을 10종 이상으로 확대하며 노트북 시장을 본격 공략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노트북, 태블릿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2 in 1' 모델 'LG 그램 360'을 출시('21.3.22일) -이번에 공개한 'LG 그램 360'은 그램의 초경량·대화면에 360도 회전이 가능해 노트북, 태블릿 등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16형, 14형 등 총 2개 모델로 출시 -16:10 화면비의 WQXGA(2560x1600)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를 탑재했으며 1,480g의 무게로 경량화한 제품으로 주목 • '21년형 그램은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킨 가운데 초경량을 유지. 16인치 모델은 기네스 인증을 받아 주목 -'20.12월 공개한 'LG 그램 16('21년형)'은 1.19kg의 무게로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 최경량 16형 노트북'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형 LG 그램 14'도 무게 약 999g, 두께 16.8mm로 경량화 한 가운데 1,920×1,200 화소 디스플레이와 72Whr 대용량 배터리를 내장해 작업 능력과 배터리 지속 시간을 확대
 Leno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가 슬림 7i 카본'을 출시했으며 상판에 탄소섬유(카본)를 적용해 무게는 966g으로 이전 제품에 비해 최대 47% 줄이고 강도는 25% 향상. 두께는 14.25mm로 휴대성을 극대화 -또한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EVO 플랫폼 인증을 통과해 동영상 재생 시 최대 15시간, 오피스 프로그램 실행 시 최대 1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
 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kg 미만 노트북인 '프로북 635 에어로 G7'을 출시하며 초경량 노트북 PC 시장에 진출 -'프로북 635 에어로 G7'은 무게 990g, 두께는 15.9mm 수준으로 낮췄고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 소재 본체 기반 실버 디자인을 적용해 디자인과 휴대성을 개선
 A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인치 고성능 슬림형 노트북 2종 '젠북 듀오 14(UX482)'와 '젠북 UX435'를 출시('21.2월)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에 FHD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키보드 상단에 업그레이드된 틸트형 스크린 패드 플러스가 달려 최대 7도까지 각도를 조절 가능. 또한 내장된 스타일러스 펜을 통해 터치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 또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2종 'ROG 제피러스 듀오 GX551', 'ROG 제피러스 GA401'을 출시('21.3월) -신제품 게이밍 노트북 'ROG 제피러스 듀오 GX551', 'ROG 제피러스 GA401'은 최대 AMD 라이젠 9 프로세서를 탑재해 고성능은 물론, 컨버터블 폼팩터와 듀얼 스크린 등을 탑재해 활용성을 극대화
 HUAW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웨이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챙기는 소비자를 위해 100만 원 초반대 '메이트북 14'를 '21.2월 출시 -무게 1.49kg, AMD의 라이젠 46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그래픽카드, 10시간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 화웨이가 이달 초 국내에 정식 출시한 '화웨이 메이트북 14' 또한 사용자들에게 선명한 2K 디스플레이와 고성능 라이젠 프로세서,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된 전원 버튼 등의 특징으로 호평 -화웨이는 올해도 온라인 수업과 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가정용 디바이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품질의 프리미엄 노트북인 '메이트북'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
 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 M1을 탑재한 맥북에어·맥북프로 등 노트북 2종을 공개('20.11월) -애플은 PC용 'M1'을 처음 공개하면서 이를 탑재한 '맥북에어'와 '맥북프로'를 공개. 신제품에 최신 반도체 제조공정 5nm를 채택한 M1칩을 탑재하면서 종전 제품보다 CPU 2.8~3.5배, GPU 5배, 머신 러닝 연산 9~11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배터리 성능도 무선 웹 서핑 시 최대 17시간 등으로 향상 ※애플은 그동안 인텔 반도체를 활용했으나 독자 칩 전환으로 자체 매출 확대, 기기 성능 향상을 도모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그림 2-5 | 업체별 주요 노트북 PC 제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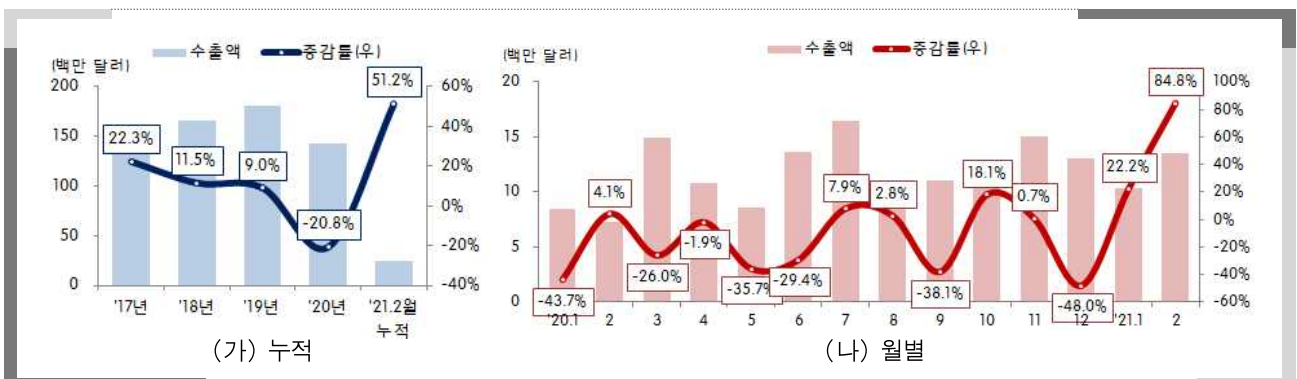


자료 : 각 사

□ '21.2월 노트북 PC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4.8% 증가한 1,354.9만 달러 기록

- (전체) 기저효과와 더불어 비대면 수요 증가로 노트북 PC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달성
 - (누적) '19년까지 성장세를 지속해오던 노트북 PC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20년 20.8% 감소한 1억 4,310만 달러를 기록. 그러나 '20.하반기부터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면서 '21.2월 누적 기준 51.2% 늘어난 2,391만 달러 달성

그림 2-6 | 노트북 PC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월별) '20.상반기 코로나19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PC 생산지인 중국·대만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부품 수급을 비롯한 물류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하락. 하반기 수요 회복과 더불어 수급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 '21년 들어 2개월 연속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 ※ 한편 데스크톱 PC 수출은 '21.8월 이후부터 '21.2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 (상위국) 노트북 PC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포함해 일본·독일·싱가포르 등 비대면 환경 전환이 빠른 선진 시장으로의 수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
 - '21.2월 기준 미국이 전년 동월대비 260.8% 증가한 357만 달러로, 전체 노트북 PC 수출의 26.4% 차지했으며 일본(192만 달러, 26.3%↑)·독일(142만 달러, 194.9%↑) 등도 고성장을 기록
 - 반면 싱가포르는 전년 동월대비 12.3% 감소한 102만 달러로 수출이 부진하며 4위국으로 하락

표 2-2 노트북 PC 수출 상위 5대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42.3	-12.4	29.6	미국	3.6	260.8	26.4	6.2	68.8	30.6
2	일본	12.4	5.1	8.6	일본	1.9	26.3	14.2	3.3	34.2	23.5
3	싱가포르	11.5	33.8	8.1	독일	1.4	194.9	10.5	2.0	44.5	23.2
4	중국	10.6	-30.1	7.4	싱가포르	1.0	-12.3	7.5	2.0	-5.6	3.4
5	독일	8.7	-58.1	6.1	베트남	0.8	55.8	5.6	0.9	31.2	2.9

자료 : IITP, KTSPI

3 Ex-Briefing

□ 알래스카 회담 후폭풍,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세계 양분화 기조

-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무역·인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공동성명 합의문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마무리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이 3.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참석으로 총 3차례 진행
-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 안정성을 유지해 온 질서를 위협한다며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등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침해를 거론했으며 중국의 사이버 공격 및 동맹국에게 가하는 경제적 압박 등을 언급
- 이에 중국은 위구르 신장, 홍콩,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며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 이어 미국의 인권이 최저 수준으로 미국 내 많은 사람이 미국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역공하는 등 양국은 첫 날 모두 발언부터 강력하게 충돌
- 3.19일 개최된 3차 회담 이후 각각 완화된 논평을 통해 타협과 대립을 병행하는 구도로 마무리 됐으나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며 공동성명 등 합의문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 회담 종료

표 2-3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 주요 논제

부문	미국	중국
모두 발언	- 중국의 행동이 국제사회 질서 위협	-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흑인)
문제 제기	① 민주주의와 인권 - 위구르 인권 탄압, 홍콩/대만 문제 ② 미국의 이익과 안보 - 사이버 테러 문제, 글로벌 규칙과 동맹 강화	① 미국의 중국 내정간섭 문제 단호히 반대 ② 국가 안보 개념 남용, 배타적인 중국 정책
협력과 공조	- 기후협약 - 북한/이란/아프가니스탄 문제	- 동일

자료 : 삼성증권 재인용

- 한편 양국은 고위급 정상회담에 앞서 동맹국 회담 진행 및 다자간 연대 등을 강조
-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영상 정상회의(3.12일)에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3.15~17일), 한국(3.17~18일)을 방문해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 회담’을 연달아 진행하며 동맹국 간 결속을 강화
-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3.9일)했으며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른 자유 무역협정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를 통한 연대 강화를 도모

※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은 '20.11월 RCEP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으며 '22.1월 발효를 목표로 참가국 비준을 진행.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6조 달러, 인구는 22억 6,000만 명, 무역 규모는 5조 달러 수준

-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강하게 충돌한 이후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러시아·북한 등과 연대를 강화하며 세계 양분화 기조 확산
 -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고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EU·영국·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압박을 진행
 - ※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독자적인 관세 부과와 수출 통제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
 - 반면,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등 반미 입장이 확실한 우호국들과 친선을 강화해 공고한 대미전선을 구축하며 미국의 입지 약화를 본격적으로 추구
 - 한편 미·중 양국이 위구르 신장, 홍콩, 대만, 남중국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을 겪는 가운데 향후 해결을 위한 양국의 대화 자리 마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신냉전시대 돌입이 우려

표 2-4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이후 미·중의 정치적 행보

미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2+2 고위급 회담 진행, 공동성명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정면충돌 • (19~21일) 미국, 인도⁴⁾와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 • (22일) 미국·EU·영국·캐나다 등, 위구르 신장 인권탄압을 이유로 관련 고위관료들의 자국 여행 제한, 자산 동결, 자국 기업과 거래 제한 등 동시 제재 발표⁵⁾ • (23~25일)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EU 고위 인사들과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일) 중국과 북한 우호 관계 강화를 약속하는 구두 서신을 전달 • (22일) 위구르 신장 인권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EU 인사 10명과 단체 4곳 제재 • (22~23일)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통화패권, 내정간섭 등을 비판하며 공동성명 발표 • (24~3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오만 등을 방문하며 중국지지 요청 • (24~31일) 헝가리, 세르비아, 그리스, 북마케도니아를 방문해 이들과 군사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 (27일) 위구르 신장 인권 문제와 관련,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개인 및 단체를 제재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4)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지켰으나 중국의 남아시아 등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미국과 공동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미국으로 외교 무게의 중심을 옮겨가는 분위기

5) 미국 재무부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탄압과 관련해 주하이룬 전 신장당위원회 부서기, 왕밍산 신장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왕원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천징거우 신장공안국장 등 중국 관료 4명에 대해 제재를 시작했으며, EU와 캐나다, 영국도 각각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미국이 제제한 중국 관료 4명과 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

□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를 공개하고 기술 자립자강을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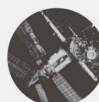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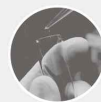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21.3.4~11일 개최된 양회⁶⁾에서 핵심기술 자립을 위한 과학기술 독립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기술 고도화 속도에 박차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개최 기간 '21.3.4~11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를 발표
 - ※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초안은 142페이지, 총 19편으로 작성됐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와 사회, 환경,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이 포함
- 위 추진안에 따르면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목표로 AI, 양자통신, 집적회로(반도체), 뇌 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우주 심해·극지 탐사 등 7대 첨단 과학기술을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
 - ※ 양자통신과 AI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이 앞서고 있는 영역으로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통해 기술 자립과 미국과의 기술 패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또한 '25년까지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희토류 등 첨단 신소재, 고속철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항공기 엔진 및 가스터빈, 베이더우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 및 스마트카,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장비 등 8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
 - ※ 한편 '15년 발표돼 불공정한 산업 보조금 정책이라며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됐던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공학, 신소재, 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 등이 8대 산업에 포함되면서 '중국제조 2025'을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
- 중국 정부는 '21년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10.6% 늘어난 2조 7,000억 위안을 투입하고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21~'25년) 동안 R&D 예산을 매년 7%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
- 더불어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수를 '20년 6.3개에서 '25년 12개로 두 배 늘리고, 같은 기간 디지털 경제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7.8%에서 10%로 확대하기로 결정
- 한편 중국 정부는 첨단 기술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시장 전망 대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고려와 더불어 경제 성장률 등 양적인 측면보다는 기술 발전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 사회과학원 7.8%↑, 중신증권 8.9%↑, 노무라증권 9.0%↑, IMF 8.1%↑, 세계은행 7.9%↑ 등 글로벌 연구 기관에서는 '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7~9% 수준으로 예상

6)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최대의 정치행사로 전국인민대표대회('21.3.5~11일)·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21.3.4~10일)를 통칭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4,572,047	-8.9	100.0	417,112	8.6	100.0	4,285,865	3.1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218,685	-12.5	70.4	290,885	7.7	69.7	2,984,428	1.3	69.6
- 전자부품	1,963,110	-17.5	42.9	177,231	9.2	42.5	1,791,291	-0.5	41.8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9,625	-18.2	2.2	11,868	17.3	2.8	141,800	58.7	3.3
- 통신 및 방송기기	396,963	-4.5	8.7	34,918	4.8	8.4	376,630	3.5	8.8
- 영상 및 음향기기	92,325	-5.4	2.0	6,902	-10.0	1.7	79,988	-5.4	1.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66,662	0.4	14.6	59,967	5.8	14.4	594,718	-2.1	13.9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70,021	0.4	16.8	68,069	3.8	16.3	726,120	3.0	16.9
- 통신서비스	359,141	-3.7	7.9	30,778	1.0	7.4	335,406	1.6	7.8
· 유선통신서비스	100,746	-4.5	2.2	8,341	0.4	2.0	92,284	-0.1	2.2
· 무선통신서비스	235,632	-3.6	5.2	20,614	1.5	4.9	223,026	2.8	5.2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762	0.2	0.5	1,824	-1.1	0.4	20,095	-3.8	0.5
- 방송서비스	191,824	2.5	4.2	16,326	1.5	3.9	178,872	2.4	4.2
· 지상파방송서비스	37,539	-1.4	0.8	3,113	0.7	0.7	31,207	-8.1	0.7
· 유료방송서비스	63,184	3.9	1.4	5,836	4.4	1.4	62,659	8.8	1.5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0,556	3.3	2.0	7,325	-0.3	1.8	84,521	2.2	2.0
· 기타방송서비스	545	2.4	0.0	53	5.9	0.0	485	-0.9	0.0
- 정보서비스	219,057	5.9	4.8	20,964	10.0	5.0	211,842	5.8	4.9
· 정보인프라서비스	39,143	-1.2	0.9	3,170	-8.5	0.8	34,990	-2.2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179,914	7.6	3.9	17,794	14.1	4.3	176,853	7.5	4.1
○ 소프트웨어	583,342	2.1	12.8	58,158	19.9	13.9	575,317	13.8	13.4
- 패키지 소프트웨어	103,567	0.4	2.3	9,225	0.8	2.2	89,724	1.1	2.1
- 게임 소프트웨어	123,016	3.7	2.7	12,234	32.5	2.9	135,654	24.0	3.2
- IT 서비스	356,759	2.1	7.8	36,698	21.8	8.8	349,938	13.9	8.2

자료 : KEA, KAIT, 2021.2.



2

2021년 2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년	5,478.7	1,552.4	-0.9	5,195.8	779.5	-4.4	282.9	772.8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1/4분기	1,301.8	430.9	0.4	1,215.0	259.8	0.4	86.8	171.1
2/4분기	1,103.4	417.3	-5.8	1,083.9	267.8	-3.3	19.5	149.5
3/4분기	1,300.7	478.0	5.2	1,140.7	286.2	4.7	160.1	191.8
4/4분기	1,419.0	508.8	15.3	1,236.8	312.4	13.8	182.3	196.4
상반기	2,405.2	848.2	-2.8	2,298.9	527.6	-1.6	106.3	320.6
하반기	2,719.8	986.9	10.2	2,377.4	598.7	9.3	342.3	388.2
1월	431.0	134.0	-7.2	427.2	88.3	-6.1	3.8	45.7
2월	409.1	137.0	8.2	369.8	77.0	5.7	39.3	60.0
3월	461.7	159.9	1.1	418.0	94.5	2.8	43.6	65.5
4월	362.7	128.7	-15.3	379.3	88.7	-6.4	-16.6	40.0
5월	348.5	139.2	-2.7	346.6	89.3	-7.7	1.9	49.9
6월	392.1	149.5	0.9	357.9	89.8	5.0	34.2	59.6
7월	427.9	149.7	3.3	388.5	98.6	1.2	39.4	51.2
8월	394.7	152.2	0.2	358.2	92.0	4.4	36.5	60.1
9월	478.2	176.1	11.8	394.0	95.6	9.1	84.2	80.5
10월	448.2	163.9	5.9	390.9	102.2	9.3	57.2	61.7
11월	457.5	165.3	15.8	399.4	103.7	14.2	58.1	61.6
12월	513.3	179.6	24.9	446.4	106.5	18.2	66.9	73.1
2021년	928.3	315.7	16.5	863.6	199.5	20.6	64.6	116.2
1월	480.2	162.9	21.6	442.5	107.6	21.8	37.6	55.3
2월	448.1	152.8	11.5	421.1	91.9	19.3	27.0	60.9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3,509	3.8	100.0	15,282	11.5	100.0	31,571	16.5	100.0
○전자부품	131,075	3.4	71.4	10,899	13.7	71.3	22,715	18.1	71.9
- 반도체	100,251	5.4	54.6	8,439	12.5	55.2	17,219	16.4	54.5
· 메모리반도체	63,929	1.5	34.8	5,221	12.6	34.2	10,539	18.5	33.4
· 시스템반도체	30,263	17.8	16.5	2,696	13.2	17.6	5,606	14.6	17.8
- 디스플레이	20,713	-5.1	11.3	1,618	22.3	10.6	3,692	27.6	11.7
- 전자관	4	-11.9	0.0	0	60.5	0.0	1	17.1	0.0
- 수동부품	2,032	6.5	1.1	179	25.7	1.2	381	33.1	1.2
PCB	5,032	4.8	2.7	398	5.8	2.6	859	9.1	2.7
- 접속부품	2,853	-0.3	1.6	247	12.4	1.6	528	18.4	1.7
- 기타전자부품	132	-17.0	0.1	12	1.2	0.1	24	1.2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07	53.0	7.6	1,071	-5.6	7.0	2,064	-1.8	6.5
- 컴퓨터	2,061	4.2	1.1	152	16.6	1.0	314	20.0	1.0
- 주변기기	11,846	66.6	6.5	919	-8.5	6.0	1,750	-4.9	5.5
· 디스플레이장치	580	-39.1	0.3	46	-28.2	0.3	89	-36.8	0.3
· 프린터(부분품포함)	362	-16.1	0.2	33	30.2	0.2	65	24.9	0.2
· 보조기억장치	10,107	100.0	5.5	780	-6.1	5.1	1,485	-2.5	4.7
○통신 및 방송기기	13,677	-5.3	7.5	1,219	12.1	8.0	2,610	33.0	8.3
- 통신기기	13,208	-6.0	7.2	1,179	11.8	7.7	2,527	33.1	8.0
· 유선통신기기	825	-1.0	0.4	67	14.2	0.4	122	4.0	0.4
· 무선통신기기	12,383	-6.3	6.7	1,112	11.6	7.3	2,405	35.1	7.6
휴대폰(부분품 포함)	11,228	-6.3	6.1	1,031	15.0	6.7	2,227	41.4	7.1
- 방송용 장비	469	21.0	0.3	40	22.4	0.3	83	28.6	0.3
○영상 및 음향기기	2,627	-40.8	1.4	182	-25.0	1.2	364	-25.8	1.2
- 영상기기	1,784	-48.1	1.0	120	-28.3	0.8	228	-33.4	0.7
· TV	1,474	-51.8	0.8	87	-36.2	0.6	165	-41.7	0.5
LCD TV	198	-47.6	0.1	2	-93.0	0.0	4	-93.1	0.0
TV 부분품	1,166	-54.7	0.6	84	-13.6	0.5	159	-21.1	0.5
· 셋탑박스	13	-39.0	0.0	2	59.0	0.0	4	243.0	0.0
- 음향기기	802	-16.3	0.4	58	-18.4	0.4	130	-8.5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40	2.2	0.0	3	-1.4	0.0	6	-8.9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222	0.5	12.1	1,912	15.6	12.5	3,818	15.6	12.1
-가정용전기기기	4,197	16.5	2.3	390	45.4	2.6	769	47.2	2.4
-사무용기기	341	3.9	0.2	27	-0.7	0.2	53	-13.3	0.2
-의료용기기	2,041	-4.3	1.1	185	23.0	1.2	355	18.5	1.1
-전기 장비	10,435	-0.8	5.7	877	6.6	5.7	1,757	8.4	5.6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614	1.0	4.1	633	9.3	4.1	1,269	9.6	4.0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12,628	3.9	100.0	9,192	19.3	100.0	19,947	20.6	100.0
○ 전자부품	61,644	5.6	54.7	4,940	6.4	53.7	10,440	12.7	52.3
- 반도체	50,627	6.8	45.0	4,089	4.6	44.5	8,647	12.7	43.3
· 메모리반도체	18,887	-2.2	16.8	1,352	-13.0	14.7	2,886	1.6	14.5
· 시스템반도체	24,650	18.7	21.9	2,121	14.1	23.1	4,497	19.9	22.5
- 디스플레이	3,818	-8.0	3.4	242	-10.8	2.6	503	-11.9	2.5
- 전자관	56	34.6	0.0	3	-29.1	0.0	8	-25.8	0.0
- 수동부품	2,229	12.7	2.0	200	40.2	2.2	406	31.0	2.0
PCB	2,364	4.8	2.1	185	17.6	2.0	416	23.3	2.1
- 접속부품	2,169	-2.1	1.9	191	35.9	2.1	394	24.9	2.0
- 기타전자부품	287	4.6	0.3	22	80.5	0.2	53	46.6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425	16.6	11.9	1,254	59.3	13.6	2,840	42.4	14.2
- 컴퓨터	7,954	14.6	7.1	773	82.7	8.4	1,809	55.5	9.1
- 주변기기	5,472	19.5	4.9	481	32.1	5.2	1,031	24.0	5.2
· 디스플레이장치	877	20.1	0.8	87	151.0	0.9	194	53.4	1.0
· 프린터(부분품포함)	867	-1.8	0.8	84	57.1	0.9	171	28.5	0.9
· 보조기억장치	2,669	34.5	2.4	226	2.2	2.5	467	8.7	2.3
○ 통신 및 방송기기	14,509	-5.9	12.9	1,114	30.2	12.1	2,730	33.2	13.7
- 통신기기	14,033	-6.9	12.5	1,076	29.1	11.7	2,649	32.6	13.3
· 유선통신기기	1,916	-10.8	1.7	159	50.0	1.7	328	31.4	1.6
· 무선통신기기	12,117	-6.2	10.8	917	26.1	10.0	2,321	32.7	11.6
휴대폰(부분품 포함)	9,067	-8.8	8.1	644	18.8	7.0	1,727	30.2	8.7
- 방송용 장비	476	35.1	0.4	38	71.8	0.4	82	55.4	0.4
○ 영상 및 음향기기	3,378	-26.0	3.0	259	20.4	2.8	588	9.4	2.9
- 영상기기	2,144	-33.7	1.9	160	3.0	1.7	372	-0.1	1.9
· TV	1,600	-40.5	1.4	119	-8.4	1.3	296	-3.1	1.5
LCD TV	663	10.6	0.6	64	72.7	0.7	154	56.8	0.8
TV 부분품	819	-59.0	0.7	28	-67.9	0.3	85	-56.9	0.4
· 셋탑박스	193	17.8	0.2	13	239.4	0.1	24	30.8	0.1
- 음향기기	1,004	-6.1	0.9	76	35.2	0.8	168	13.7	0.8
- 기타 영상음향기기	231	-12.9	0.2	23	543.3	0.2	48	174.7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672	6.5	17.5	1,625	35.1	17.7	3,348	24.7	16.8
- 가정용전기기기	3,945	9.5	3.5	326	94.2	3.5	655	41.1	3.3
- 사무용기기	32	-28.5	0.0	3	46.8	0.0	5	1.3	0.0
- 의료용기기	2,183	4.2	1.9	168	-4.1	1.8	339	-0.6	1.7
- 전기 장비	5,905	10.9	5.2	543	70.7	5.9	1,139	43.5	5.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2,524	12.1	2.2	233	95.5	2.5	462	45.2	2.3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183,509	112,628	70,881	15,282	9,192	6,089	11,623
○전자부품	131,075	61,644	69,432	10,899	4,940	5,959	12,275
- 반도체	100,251	50,627	49,624	8,439	4,089	4,351	8,572
· 메모리반도체	63,929	18,887	45,041	5,221	1,352	3,868	7,652
· 시스템반도체	30,263	24,650	5,613	2,696	2,121	576	1,108
- 디스플레이	20,713	3,818	16,895	1,618	242	1,376	3,188
- 전자관	4	56	-52	0	3	-3	-7
- 수동부품	2,032	2,229	-198	179	200	-21	-25
PCB	5,032	2,364	2,669	398	185	212	443
- 접속부품	2,853	2,169	684	247	191	55	134
- 기타전자부품	132	287	-154	12	22	-10	-28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07	13,425	482	1,071	1,254	-184	-776
- 컴퓨터	2,061	7,954	-5,893	152	773	-621	-1,495
- 주변기기	11,846	5,472	6,375	919	481	437	719
· 디스플레이장치	580	877	-297	46	87	-40	-105
· 프린터(부분품포함)	362	867	-504	33	84	-51	-105
· 보조기억장치	10,107	2,669	7,438	780	226	554	1,017
○통신 및 방송기기	13,677	14,509	-831	1,219	1,114	105	-120
- 통신기기	13,208	14,033	-824	1,179	1,076	103	-122
· 유선통신기기	825	1,916	-1,091	67	159	-92	-206
· 무선통신기기	12,383	12,117	267	1,112	917	195	84
휴대폰(부분품 포함)	11,228	9,067	2,161	1,031	644	387	500
- 방송용 장비	469	476	-7	40	38	2	1
○영상 및 음향기기	2,627	3,378	-751	182	259	-77	-224
- 영상기기	1,784	2,144	-359	120	160	-40	-144
· TV	1,474	1,600	-126	87	119	-32	-131
LCD TV	198	663	-465	2	64	-62	-149
TV 부분품	1,166	819	347	84	28	55	75
· 셋탑박스	13	193	-179	2	13	-12	-20
- 음향기기	802	1,004	-201	58	76	-18	-39
- 기타 영상음향기기	40	231	-190	3	23	-20	-4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222	19,672	2,550	1,912	1,625	286	470
- 가정용전기기기	4,197	3,945	253	390	326	64	115
- 사무용기기	341	32	310	27	3	24	47
- 의료용기기	2,041	2,183	-142	185	168	17	16
- 전기 장비	10,435	5,905	4,530	877	543	334	61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614	2,524	5,090	633	233	400	807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83,509	3.8	100.0	15,282	11.5	100.0	31,571	16.5	100.0
○ 아시아	141,680	3.2	77.2	11,729	12.5	76.7	24,466	18.0	77.5
- 중국(홍콩포함)	86,872	0.1	47.3	7,023	13.6	46.0	14,435	18.5	45.7
- 일 본	3,899	-5.2	2.1	321	-4.3	2.1	659	-0.1	2.1
- ASEAN	40,512	7.9	22.1	3,241	2.9	21.2	7,089	9.3	22.5
· 싱가포르	3,231	12.6	1.8	290	5.9	1.9	556	4.7	1.8
· 인 니	779	-9.2	0.4	71	2.9	0.5	137	5.3	0.4
· 말 련	2,101	3.2	1.1	183	18.2	1.2	368	6.9	1.2
· 태 국	1,130	1.3	0.6	98	10.3	0.6	200	14.3	0.6
· 베트남	29,763	9.6	16.2	2,309	-0.8	15.1	5,258	9.4	16.7
- 대 만	7,937	40.2	4.3	860	82.1	5.6	1,736	98.8	5.5
- 인 도	2,221	-20.9	1.2	266	3.1	1.7	516	3.6	1.6
○ 북미	22,771	18.3	12.4	1,893	7.9	12.4	3,849	15.6	12.2
- 미 국	22,085	20.2	12.0	1,820	6.7	11.9	3,722	14.8	11.8
- 캐나다	589	-24.9	0.3	66	71.8	0.4	111	58.9	0.4
○ 유럽	12,566	4.7	6.8	1,121	15.2	7.3	2,165	12.2	6.9
- EU	10,402	-3.1	5.7	929	14.0	6.1	1,831	12.0	5.8
· 영 국	2,890	3.0	1.6	260	24.1	1.7	531	22.0	1.7
· 독 일	595	-29.0	0.3	56	13.2	0.4	101	-4.4	0.3
· 프랑스	328	14.2	0.2	30	43.7	0.2	61	34.3	0.2
· 이탈리아	846	48.0	0.5	86	64.9	0.6	134	41.0	0.4
- 러시아	725	4.5	0.4	58	1.3	0.4	108	-1.8	0.3
○ 중동	1,681	-13.7	0.9	118	-25.1	0.8	245	-21.6	0.8
- 사우디	238	2.0	0.1	15	-26.6	0.1	33	-11.1	0.1
- UAE	569	14.4	0.3	37	-37.6	0.2	73	-38.5	0.2
○ 중남미	3,807	-28.3	2.1	346	8.1	2.3	700	10.1	2.2
- 브라질	1,449	-16.7	0.8	140	1.2	0.9	284	9.4	0.9
- 멕시코	2,103	-24.4	1.1	183	12.6	1.2	368	11.8	1.2
- 칠 레	80	-1.3	0.0	7	12.9	0.0	15	-2.1	0.0
○ 대양주	711	-4.8	0.4	47	-12.5	0.3	97	-3.7	0.3
- 호 주	634	-5.2	0.3	40	-18.6	0.3	83	-7.6	0.3
○ 아프리카	281	-20.2	0.2	29	51.2	0.2	48	2.9	0.2
※ 브릭스	67,226	0.6	36.6	5,465	17.4	35.8	11,416	21.4	36.2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12,628	3.9	100.0	9,192	19.3	100.0	19,947	20.6	100.0
○ 아시아	92,815	5.2	82.4	7,911	27.2	86.1	16,889	24.4	84.7
- 중국(홍콩포함)	48,230	3.0	42.8	3,133	7.1	34.1	7,959	17.2	39.9
- 일 본	10,428	3.9	9.3	856	14.8	9.3	1,788	23.9	9.0
- ASEAN	20,561	2.9	18.3	1,542	0.4	16.8	3,440	3.6	17.2
· 싱가포르	3,942	33.9	3.5	217	-12.5	2.4	493	-22.1	2.5
· 인 니	475	11.8	0.4	71	95.7	0.8	141	99.7	0.7
· 말 련	3,277	2.0	2.9	273	12.0	3.0	530	0.7	2.7
· 태 국	1,545	14.2	1.4	151	32.4	1.6	303	30.0	1.5
· 베트남	9,747	-1.0	8.7	717	-6.0	7.8	1,740	10.2	8.7
- 대 만	13,507	19.9	12.0	1,272	26.2	13.8	2,587	28.7	13.0
- 인 도	80	-17.4	0.1	6	-7.5	0.1	12	-16.4	0.1
○ 북미	8,368	-7.0	7.4	654	-5.8	7.1	1,455	4.3	7.3
- 미 국	8,033	-7.3	7.1	632	-4.5	6.9	1,403	4.6	7.0
- 캐나다	236	5.3	0.2	14	-42.5	0.2	33	-11.8	0.2
○ 유럽	7,027	-5.3	6.2	502	-8.2	5.5	1,027	-5.2	5.1
- EU	6,095	-12.9	5.4	430	-8.8	4.7	890	-5.6	4.5
· 영 국	2,948	6.3	2.6	213	-6.0	2.3	439	4.9	2.2
· 독 일	750	-2.8	0.7	48	-29.5	0.5	92	-36.8	0.5
· 프랑스	351	4.2	0.3	21	-11.7	0.2	52	0.3	0.3
· 이탈리아	514	-3.1	0.5	35	-22.1	0.4	70	-15.5	0.3
- 러시아	21	18.5	0.0	2	78.1	0.0	4	31.1	0.0
○ 중동	552	22.7	0.5	47	-0.7	0.5	149	83.5	0.7
- 사우디	2	309.4	0.0	0	-20.5	0.0	1	80.1	0.0
- UAE	73	1.4	0.1	4	-29.0	0.0	8	-12.1	0.0
○ 중남미	889	-1.4	0.8	69	-5.2	0.8	147	5.6	0.7
- 브라질	11	24.4	0.0	4	449.3	0.0	4	165.7	0.0
- 멕시코	868	-1.5	0.8	66	-9.3	0.7	142	3.9	0.7
- 칠 레	1	-59.4	0.0	0	-83.7	0.0	0	-67.3	0.0
○ 대양주	91	-35.4	0.1	7	26.4	0.1	14	14.7	0.1
- 호 주	62	-37.4	0.1	5	53.4	0.1	11	19.0	0.1
○ 아프리카	54	-9.6	0.0	1	-72.8	0.0	5	-39.8	0.0
※ 브릭스	47,389	3.8	42.1	3,111	8.0	33.8	7,863	17.4	39.4

자료 : IITP, KTSPI



표 3-8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수출	수입	수지	2월 당월			2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83,509	112,628	70,881	15,282	9,192	6,089	11,623
○ 아시아	141,680	92,815	48,865	11,729	7,911	3,818	7,577
- 중국(홍콩포함)	86,872	48,230	38,642	7,023	3,133	3,890	6,476
- 일 본	3,899	10,428	-6,530	321	856	-534	-1,129
- ASEAN	40,512	20,561	19,951	3,241	1,542	1,699	3,649
· 싱가포르	3,231	3,942	-711	290	217	73	63
· 인 니	779	475	304	71	71	-1	-4
· 말 련	2,101	3,277	-1,176	183	273	-91	-162
· 태 국	1,130	1,545	-415	98	151	-54	-103
· 베트남	29,763	9,747	20,016	2,309	717	1,592	3,518
- 대 만	7,937	13,507	-5,570	860	1,272	-412	-851
- 인 도	2,221	80	2,141	266	6	260	504
○ 북미	22,771	8,368	14,403	1,893	654	1,238	2,395
- 미 국	22,085	8,033	14,052	1,820	632	1,187	2,319
- 캐나다	589	236	353	66	14	52	78
○ 유럽	12,566	7,027	5,539	1,121	502	618	1,138
- EU	10,402	6,095	4,307	929	430	499	941
· 영 국	2,890	2,948	-58	260	213	47	93
· 독 일	595	750	-155	56	48	8	9
· 프랑스	328	351	-23	30	21	10	10
· 이탈리아	846	514	331	86	35	50	65
- 러시아	725	21	704	58	2	56	105
○ 중동	1,681	552	1,129	118	47	71	96
- 사우디	238	2	236	15	0	15	32
- UAE	569	73	496	37	4	33	65
○ 중남미	3,807	889	2,917	346	69	276	553
- 브라질	1,449	11	1,438	140	4	136	280
- 멕시코	2,103	868	1,236	183	66	117	226
- 칠 레	80	1	79	7	0	7	15
○ 대양주	711	91	620	47	7	40	82
- 호 주	634	62	572	40	5	35	73
○ 아프리카	281	54	227	29	1	28	43
※ 브릭스	67,226	47,389	19,837	5,465	3,111	2,355	3,553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9,345	-0.3	100.0	1,124	30.6	100.0	10,100	8.1	100.0
○ 전자부품	2,424	3.8	25.9	294	33.2	26.1	2,609	7.7	25.8
- 반도체	1,722	6.1	18.4	203	29.3	18.1	1,877	9.0	18.6
- 디스플레이 패널	258	2.6	2.8	25	24.0	2.2	244	-5.1	2.4
- 전자관	1	-27.5	0.0	0	25.3	0.0	1	-17.1	0.0
- 수동부품	83	-13.7	0.9	24	163.8	2.2	115	38.9	1.1
- PCB	147	-4.1	1.6	16	28.6	1.5	151	3.1	1.5
- 접속부품	189	2.3	2.0	22	17.4	1.9	197	4.0	1.9
- 기타 전자부품	25	-3.8	0.3	3	11.7	0.2	24	-2.1	0.2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33	-3.5	19.6	217	34.9	19.3	2,024	10.4	20.0
- 컴퓨터	1,201	-3.8	12.8	149	47.2	13.3	1,385	15.4	13.7
- 주변기기	633	-2.9	6.8	68	14.0	6.0	639	1.0	6.3
· 디스플레이장치	158	2.6	1.7	17	31.4	1.5	162	2.7	1.6
· 프린터(부품포함)	157	-8.3	1.7	13	-7.4	1.2	128	-18.4	1.3
· 보조기억장치	173	-3.0	1.8	17	-1.6	1.5	174	0.4	1.7
· 저장 매체	34	6.5	0.4	3	2.5	0.3	32	-6.2	0.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11	-4.6	1.2	17	49.1	1.5	144	29.4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372	-6.8	25.4	267	19.6	23.8	2,373	0.1	23.5
- 통신기기	2,274	-6.7	24.3	253	18.2	22.5	2,265	-0.4	22.4
· 유선통신기기	484	9.0	5.2	53	14.9	4.7	498	3.0	4.9
· 무선통신기기	1,790	-10.2	19.2	200	19.1	17.8	1,766	-1.3	17.5
- 방송국용 기기	98	-9.2	1.0	14	52.5	1.2	108	10.8	1.1
○ 영상 및 음향기기	639	-5.6	6.8	79	45.8	7.1	689	7.8	6.8
- 영상기기	323	-8.0	3.5	35	21.6	3.1	338	4.5	3.3
- 음향기기	209	-2.2	2.2	29	45.0	2.6	234	12.1	2.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06	-4.8	1.1	15	177.6	1.3	116	9.7	1.2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2,078	8.2	22.2	267	32.3	23.7	2,405	15.8	23.8
- 가정용 기기	769	5.7	8.2	98	49.7	8.7	909	18.2	9.0
- 사무용 기기	44	6.8	0.5	4	6.4	0.4	40	-9.3	0.4
- 의료용 기기	113	23.1	1.2	15	28.0	1.3	162	43.3	1.6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97	12.6	2.1	28	45.9	2.5	243	23.3	2.4
- 전기 장비	955	8.0	10.2	122	20.0	10.8	1,052	10.2	10.4
· 건전지 및 축전지	206	11.8	2.2	28	36.6	2.5	241	17.1	2.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183	-3.5	100.0	702	23.0	100.0	6,742	9.0	100.0
○ 전자부품	4,297	-3.8	69.5	480	23.6	68.4	4,772	11.1	70.8
- 반도체	3,536	-2.5	57.2	396	24.3	56.5	4,001	13.2	59.3
- 디스플레이 패널	317	-6.1	5.1	29	9.7	4.1	296	-6.6	4.4
- 전자관	2	-6.6	0.0	0	33.9	0.0	2	3.6	0.0
- 수동부품	146	-17.9	2.4	25	48.5	3.5	179	22.9	2.7
- PCB	113	-9.1	1.8	11	13.3	1.6	109	-3.3	1.6
- 접속부품	179	-8.1	2.9	18	11.9	2.6	181	1.1	2.7
- 기타 전자부품	5	-22.7	0.1	0	-1.8	0.1	4	-9.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21	-3.2	6.8	44	6.9	6.3	450	6.8	6.7
- 컴퓨터	32	-31.8	0.5	3	-6.7	0.4	29	-11.1	0.4
- 주변기기	389	0.3	6.3	41	8.0	5.8	422	8.3	6.3
· 디스플레이장치	8	28.5	0.1	1	15.7	0.1	8	7.9	0.1
· 프린터(부품포함)	65	-8.8	1.1	6	4.1	0.8	56	-14.7	0.8
· 보조기억장치	228	1.2	3.7	24	6.9	3.4	257	12.6	3.8
· 저장 매체	43	-4.6	0.7	6	28.6	0.9	47	9.2	0.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5	12.7	0.7	5	-2.6	0.7	54	19.2	0.8
○ 통신 및 방송기기	473	-13.2	7.7	63	35.5	9.0	473	-0.1	7.0
- 통신기기	439	-12.2	7.1	60	34.8	8.5	448	1.9	6.6
· 유선통신기기	66	6.8	1.1	8	32.1	1.1	69	5.1	1.0
· 무선통신기기	373	-14.9	6.0	52	35.2	7.4	378	1.4	5.6
- 방송국용 기기	34	-24.7	0.6	4	49.1	0.5	25	-26.0	0.4
○ 영상 및 음향기기	175	-1.7	2.8	22	33.3	3.1	196	12.0	2.9
- 영상기기	120	-4.5	1.9	18	63.2	2.6	148	23.9	2.2
- 음향기기	49	-0.7	0.8	4	-29.4	0.5	43	-13.3	0.6
- 기타 영상음향기기	6	88.5	0.1	1	1.5	0.1	5	-15.4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16	4.7	13.2	93	18.9	13.2	850	4.2	12.6
- 가정용 기기	181	1.4	2.9	17	7.3	2.5	180	-0.6	2.7
- 사무용 기기	5	-10.3	0.1	0	-13.7	0.1	5	-14.0	0.1
- 의료용 기기	106	17.9	1.7	15	20.3	2.1	113	6.2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38	7.0	5.5	41	27.0	5.9	364	7.8	5.4
- 전기 장비	186	-1.8	3.0	19	14.6	2.7	188	1.5	2.8
· 건전지 및 축전지	68	-7.4	1.1	7	13.4	1.0	71	3.8	1.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663	-2.0	100.0	2,486	-6.6	100.0	217	2.1	100.0
○ 전자부품	870	-2.3	32.7	848	-2.4	34.1	77	4.5	35.4
- 반도체	645	-0.1	24.2	643	-0.3	25.9	58	5.7	26.9
- 디스플레이 패널	32	-4.6	1.2	31	-0.3	1.3	3	17.9	1.3
- 전자관	3	15.0	0.1	3	-1.0	0.1	0	-17.3	0.1
- 수동부품	31	-14.8	1.2	31	-0.5	1.2	3	12.8	1.4
- PCB	13	-19.5	0.5	12	-4.0	0.5	1	0.7	0.5
- 접속부품	143	-6.3	5.4	125	-12.4	5.0	11	-4.5	5.1
- 기타 전자부품	3	-12.7	0.1	2	-18.3	0.1	0	-26.1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65	-2.8	13.7	357	-2.3	14.4	32	7.3	14.6
- 컴퓨터	155	-0.4	5.8	153	-1.7	6.1	13	7.3	6.1
- 주변기기	210	-4.5	7.9	204	-2.8	8.2	18	7.3	8.5
· 디스플레이장치	18	1.2	0.7	15	-16.8	0.6	1	-6.4	0.6
· 프린터(부품포함)	43	-3.5	1.6	33	-22.5	1.3	3	-13.8	1.3
· 보조기억장치	53	-12.9	2.0	51	-4.2	2.0	4	2.1	2.0
· 저장 매체	46	-1.1	1.7	61	31.3	2.4	6	39.0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0	-0.4	1.9	44	-10.6	1.8	4	3.0	1.9
○ 통신 및 방송기기	380	-4.2	14.3	334	-12.1	13.5	31	6.6	14.5
- 통신기기	350	-3.9	13.1	310	-11.5	12.5	29	6.8	13.5
· 유선통신기기	179	-5.9	6.7	161	-10.1	6.5	13	-1.9	6.1
· 무선통신기기	171	-1.6	6.4	149	-12.9	6.0	16	15.1	7.4
- 방송국용 기기	30	-8.2	1.1	25	-19.1	1.0	2	3.5	0.9
○ 영상 및 음향기기	101	-7.9	3.8	84	-16.1	3.4	7	-0.7	3.1
- 영상기기	46	-8.3	1.7	33	-27.7	1.3	3	-3.0	1.2
- 음향기기	41	-3.8	1.5	37	-8.9	1.5	3	-8.8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4	-17.4	0.5	14	2.1	0.6	1	37.2	0.5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47	0.3	35.6	862	-9.0	34.7	70	-4.0	32.5
- 가정용 기기	132	-1.0	4.9	120	-8.4	4.8	10	-6.5	4.6
- 사무용 기기	11	-9.3	0.4	9	-18.4	0.3	1	-19.5	0.3
- 의료용 기기	266	3.7	10.0	262	-1.7	10.5	20	-4.8	9.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3	-0.5	11.4	277	-8.8	11.1	23	-0.3	10.6
- 전기 장비	235	-1.3	8.8	194	-17.4	7.8	17	-5.6	7.8
· 건전지 및 축전지	54	3.1	2.0	49	-9.9	2.0	4	-7.3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5,146	-5.2	100.0	5,218	1.4	100.0	458	19.0	100.0
○ 전자부품	866	-9.8	16.8	893	3.1	17.1	76	4.3	16.6
- 반도체	648	-11.0	12.6	695	7.4	13.3	57	3.1	12.5
- 디스플레이 패널	30	-4.6	0.6	30	0.5	0.6	3	16.7	0.6
- 전자관	3	7.8	0.1	3	-7.8	0.0	0	4.0	0.0
- 수동부품	34	-10.8	0.7	30	-11.5	0.6	3	3.5	0.6
- PCB	19	-12.2	0.4	17	-6.5	0.3	2	20.2	0.4
- 접속부품	127	-4.3	2.5	113	-11.3	2.2	10	6.1	2.3
- 기타 전자부품	6	-3.7	0.1	5	-20.3	0.1	0	2.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45	-2.8	24.2	1,376	10.5	26.4	118	26.4	25.7
- 컴퓨터	765	0.7	14.9	879	14.9	16.8	76	40.2	16.7
- 주변기기	481	-7.8	9.3	497	3.5	9.5	42	7.1	9.1
· 디스플레이장치	90	2.9	1.8	78	-13.7	1.5	8	46.0	1.7
· 프린터(부품포함)	144	-6.2	2.8	117	-18.9	2.2	11	-0.7	2.4
· 보조기억장치	71	-23.3	1.4	85	19.7	1.6	7	-6.2	1.5
· 저장 매체	110	-2.8	2.1	145	32.4	2.8	10	2.3	2.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5	-11.7	1.3	72	10.6	1.4	7	11.7	1.4
○ 통신 및 방송기기	1,163	-7.7	22.6	1,082	-7.0	20.7	94	20.1	20.5
- 통신기기	1,054	-8.2	20.5	974	-7.6	18.7	86	21.9	18.8
· 유선통신기기	414	-18.0	8.0	404	-2.3	7.7	32	1.6	7.0
· 무선통신기기	640	-0.4	12.4	570	-11.0	10.9	54	38.3	11.8
- 방송국용 기기	109	-3.1	2.1	108	-1.5	2.1	8	3.4	1.7
○ 영상 및 음향기기	323	-8.7	6.3	357	10.5	6.8	33	58.0	7.2
- 영상기기	171	-6.9	3.3	161	-5.9	3.1	11	-1.9	2.4
- 음향기기	102	-1.2	2.0	122	19.9	2.3	13	81.9	2.9
- 기타 영상음향기기	50	-25.3	1.0	73	47.8	1.4	8	293.9	1.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48	-1.5	30.1	1,510	-2.5	28.9	137	14.5	30.0
- 가정용 기기	384	-5.0	7.5	401	4.5	7.7	40	44.6	8.8
- 사무용 기기	28	6.5	0.6	24	-14.6	0.5	2	-7.5	0.5
- 의료용 기기	305	7.1	5.9	311	1.7	6.0	25	2.7	5.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89	-1.1	5.6	268	-7.2	5.1	22	0.0	4.7
- 전기 장비	543	-4.0	10.5	506	-6.7	9.7	48	10.0	10.5
· 건전지 및 축전지	91	1.6	1.8	105	14.5	2.0	10	26.7	2.3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2,537	-6.5	100.0	147,160	-3.5	100.0	12,091	12.8	100.0
○ 전자부품	77,219	-5.5	50.6	77,039	-0.2	52.4	6,487	14.5	53.7
- 반도체	45,537	-3.5	29.9	46,414	1.9	31.5	3,889	14.0	32.2
- 디스플레이 패널	7,872	-13.0	5.2	7,314	-7.1	5.0	594	1.4	4.9
- 전자관	272	-1.8	0.2	261	-4.1	0.2	20	24.8	0.2
- 수동부품	8,790	-0.6	5.8	9,385	6.8	6.4	815	24.1	6.7
- PCB	3,012	-12.2	2.0	2,987	-0.8	2.0	250	28.7	2.1
- 접속부품	11,097	-8.8	7.3	10,158	-8.5	6.9	872	15.7	7.2
- 기타 전자부품	639	-17.5	0.4	520	-18.6	0.4	48	0.4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199	-4.3	9.3	12,449	-12.3	8.5	1,037	-2.7	8.6
- 컴퓨터	972	-0.5	0.6	993	2.1	0.7	64	-14.7	0.5
- 주변기기	13,226	-4.6	8.7	11,456	-13.4	7.8	973	-1.8	8.0
· 디스플레이장치	1,174	38.8	0.8	1,154	-1.7	0.8	100	3.6	0.8
· 프린터(부품포함)	9,600	-5.7	6.3	8,070	-15.9	5.5	707	-2.5	5.8
· 보조기억장치	314	-23.3	0.2	184	-41.6	0.1	10	-44.9	0.1
· 저장 매체	1,574	-12.6	1.0	1,535	-2.5	1.0	115	-0.6	1.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4	-10.2	0.4	514	-8.9	0.3	40	19.0	0.3
○ 통신 및 방송기기	7,447	-20.5	4.9	6,326	-15.0	4.3	487	-2.6	4.0
- 통신기기	4,466	-22.8	2.9	3,765	-15.7	2.6	293	0.1	2.4
· 유선통신기기	1,277	-5.3	0.8	1,093	-14.4	0.7	80	-11.2	0.7
· 무선통신기기	3,189	-28.2	2.1	2,673	-16.2	1.8	213	5.1	1.8
- 방송국용 기기	2,980	-16.8	2.0	2,561	-14.1	1.7	194	-6.4	1.6
○ 영상 및 음향기기	5,211	-10.2	3.4	5,297	1.7	3.6	370	29.0	3.1
- 영상기기	2,384	-11.2	1.6	1,933	-18.9	1.3	156	18.6	1.3
- 음향기기	500	-5.7	0.3	447	-10.6	0.3	34	2.0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2,327	-10.1	1.5	2,917	25.4	2.0	180	47.6	1.5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48,462	-5.7	31.8	46,048	-5.0	31.3	3,709	15.9	30.7
- 가정용 기기	9,779	-7.1	6.4	9,231	-5.6	6.3	722	37.0	6.0
- 사무용 기기	431	-10.0	0.3	369	-14.4	0.3	28	9.1	0.2
- 의료용 기기	6,021	-2.1	3.9	5,959	-1.0	4.0	465	15.8	3.8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9,521	-4.7	12.8	18,067	-7.4	12.3	1,491	13.2	12.3
- 전기 장비	12,710	-7.7	8.3	12,422	-2.3	8.4	1,004	8.0	8.3
· 건전지 및 축전지	6,408	-10.2	4.2	6,201	-3.2	4.2	517	11.5	4.3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3,189	-0.9	100.0	148,819	-2.9	100.0	14,830	11.6	100.0
○ 전자부품	38,814	-7.1	25.3	36,602	-5.7	24.6	3,335	2.2	22.5
- 반도체	29,986	-7.3	19.6	28,333	-5.5	19.0	2,610	4.9	17.6
- 디스플레이 패널	1,678	0.8	1.1	1,684	0.3	1.1	126	-11.6	0.8
- 전자관	101	-14.6	0.1	120	19.3	0.1	4	-77.4	0.0
- 수동부품	1,250	-7.5	0.8	1,106	-11.5	0.7	98	-3.9	0.7
- PCB	1,338	-4.4	0.9	1,302	-2.7	0.9	116	-1.2	0.8
- 접속부품	3,967	-9.6	2.6	3,596	-9.4	2.4	334	-5.4	2.3
- 기타 전자부품	493	-0.3	0.3	462	-6.1	0.3	48	10.4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851	10.2	16.9	27,890	7.9	18.7	2,881	18.7	19.4
- 컴퓨터	14,611	11.7	9.5	16,943	16.0	11.4	1,883	39.4	12.7
- 주변기기	11,239	8.2	7.3	10,947	-2.6	7.4	998	-7.2	6.7
· 디스플레이장치	1,129	121.0	0.7	1,554	37.6	1.0	159	6.8	1.1
· 프린터(부품포함)	4,294	2.9	2.8	3,794	-11.7	2.5	317	-20.3	2.1
· 보조기억장치	2,684	-1.5	1.8	2,249	-16.2	1.5	188	-24.2	1.3
· 저장 매체	1,580	-2.8	1.0	1,578	-0.1	1.1	134	-0.7	0.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552	14.9	1.0	1,773	14.2	1.2	200	37.2	1.4
○ 통신 및 방송기기	31,507	-6.3	20.6	31,277	-0.7	21.0	3,883	43.2	26.2
- 통신기기	28,821	-7.6	18.8	28,805	-0.1	19.4	3,652	48.5	24.6
· 유선통신기기	7,155	9.5	4.7	7,704	7.7	5.2	695	2.7	4.7
· 무선통신기기	21,667	-12.1	14.1	21,101	-2.6	14.2	2,957	65.9	19.9
- 방송국용 기기	2,686	9.5	1.8	2,472	-8.0	1.7	232	-8.5	1.6
○ 영상 및 음향기기	11,825	2.0	7.7	11,380	-3.8	7.6	1,028	3.4	6.9
- 영상기기	6,665	5.6	4.4	6,316	-5.2	4.2	538	-8.9	3.6
- 음향기기	3,377	11.0	2.2	3,160	-6.4	2.1	312	4.6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83	-20.4	1.2	1,904	6.7	1.3	178	69.1	1.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5,192	2.6	29.5	41,669	-7.8	28.0	3,702	-5.0	25.0
- 가정용 기기	12,947	1.4	8.5	12,735	-1.6	8.6	1,043	-5.6	7.0
- 사무용 기기	862	-5.5	0.6	726	-15.7	0.5	74	-27.8	0.5
- 의료용 기기	7,488	7.9	4.9	6,570	-12.3	4.4	563	-0.4	3.8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33	-0.9	6.4	8,690	-11.6	5.8	793	-5.0	5.3
- 전기 장비	14,063	4.1	9.2	12,948	-7.9	8.7	1,228	-4.6	8.3
· 건전지 및 축전지	2,385	14.6	1.6	2,293	-3.8	1.5	214	-0.7	1.4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5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8	53,588	41.4	451,371	62.8	11,238	28.6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14.7
	2020p	53,356	6.4	342,077	-26.1	15,207	18.0
	2018.1/4	12,527	75.9	102,167	77.7	2,863	52.4
	2/4	12,543	84.5	98,533	73.7	2,665	42.5
	3/4	11,321	12.8	98,704	77.8	2,665	41.8
	4/4	17,197	23.4	151,967	41.3	3,045	-2.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7	-6.3	90,801	-36.0	3,191	2.7
	2/4	11,165	6.4	73,821	-34.0	3,572	20.1
	3/4	9,492	0.9	59,016	-39.7	3,763	13.2
	4/4p	20,352	19.3	118,439	6.2	4,681	34.3
직접구매 (수입)	2018	17,921	103.0	99,226	32.1	1,344	118.9
	2019	15,236	-15.0	93,777	-5.5	909	-32.4
	2020p	19,322	26.8	54,979	-41.4	964	6.1
	2018.1/4	5,236	100.6	25,635	37.7	244	110.3
	2/4	3,854	88.6	28,160	79.2	379	351.2
	3/4	4,320	114.1	27,358	43.1	313	219.4
	4/4	4,511	109.0	18,073	-16.7	408	29.1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6	-15.2	24,131	33.5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2	-5.6	14,052	-38.4	227	-0.4
	3/4	7,777	111.9	14,958	-41.2	179	24.3
	4/4p	3,591	-6.1	13,103	-45.7	375	-3.1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6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1월	149.9	215.4	23.0	34.4	100.6	111.3	33.9	43.2	59.2	73.4	119.5	145.8
2월	156.3	221.8	20.3	30.1	93.3	103.1	36.7	45.8	60.2	74.5	119.1	144.5
3월	182.4	253.4	26.0	37.6	103.1	115.3	41.9	52.3	70.2	85.7	140.4	170.8
4월	151.5	201.2	17.8	26.1	89.3	99.9	40.7	49.1	48.4	57.4	112.1	136.0
5월	170.6	226.2	22.0	34.5	89.5	100.6	43.9	53.6	49.0	57.3	107.1	131.0
6월	173.6	229.8	24.6	38.3	101.6	114.7	47.4	58.2	59.9	70.2	126.1	155.3
7월	164.2	227.2	25.1	37.5	115.8	129.9	51.9	64.3	62.9	70.7	135.6	167.2
8월	173.8	242.8	25.4	36.9	109.8	122.8	51.7	65.3	63.4	72.0	133.1	164.3
9월	196.3	276.2	25.5	35.4	122.6	136.3	54.2	69.3	85.0	96.4	158.7	194.9
10월	175.6	256.7	24.3	32.0	113.6	126.4	47.7	63.8	92.4	104.8	146.3	179.2
11월	174.9	256.8	24.2	30.0	113.4	125.4	54.5	72.8	97.0	111.8	158.6	193.5
12월	192.8	284.4	25.9	31.3	115.5	127.6	57.3	76.5	102.8	117.9	168.7	205.5
21.1월	177.6	257.1	24.4	29.2	118.2	129.9	45.2	60.9	88.7	101.6	148.3	184.2

자료 : 한국은행

표 3-17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1월	121.2	166.0	34.4	45.2	90.3	101.0	148.7	152.7	130.8	149.3	108.6	108.3
2월	126.5	172.8	20.5	26.6	76.8	85.9	89.9	92.9	92.3	105.3	109.5	109.0
3월	132.7	180.3	31.1	38.8	99.4	111.6	144.1	148.9	135.4	155.0	128.6	128.6
4월	116.4	152.6	35.3	44.8	95.3	106.8	145.5	150.1	128.9	154.6	117.2	117.3
5월	125.9	165.5	26.3	34.8	88.1	97.9	137.7	143.3	130.1	155.6	98.6	98.6
6월	125.1	164.4	37.5	49.3	88.8	98.5	129.0	133.0	117.2	141.3	124.0	124.1
7월	145.2	196.7	33.3	41.3	101.4	112.9	128.9	133.1	128.7	161.0	131.4	131.0
8월	143.7	195.1	33.6	40.3	105.8	117.9	121.2	125.5	104.1	129.3	120.8	119.7
9월	145.3	197.2	23.3	26.2	107.1	119.1	135.9	141.1	111.3	138.4	126.4	124.4
10월	152.0	213.9	23.9	25.1	113.3	125.2	133.9	139.7	138.2	168.4	132.1	129.9
11월	148.0	208.2	25.8	25.2	117.8	130.1	147.0	153.1	159.8	192.8	128.5	125.8
12월	148.9	209.5	26.7	25.1	120.8	133.2	170.6	177.3	149.5	179.8	148.0	143.9
21.1월	148.2	207.5	33.5	30.9	119.9	131.6	205.9	214.1	161.8	194.7	148.3	142.0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 과제 책임자 : 김현중
- ⊙ 참여 연구원 : 강희일, 조성선, 박찬선, 최재원,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30, 팩스 : (042) 612-8209